국내 위기임신청소년 학습지원 봉사 프로그램 및 이화여대 내 복지 개선 제안
: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아일랜드의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의 학습권적 측면에서의 성공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E-ther

목차

I. 서론 ····· 3

1. 탐사 배경
2. 탐사주제 및 목표

II. 본론 ····· 7

1. 기존 문헌 연구
2. 국내 탐사
3. 해외 탐사
4. 탐사의 의의
5. 정책적 제언
6. 결과물
   1)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
   2)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7. 아쉬운 점 및 추가 연구 방향성 제안

III. 결론 ····· 54

IV. 참고문헌 ····· 62

V. 부록 ····· 65

1. 탐사 일정, 사전 준비 과정
2.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 정리
3.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
4.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I. 서론

1. 탐사 배경

저조한 출생률은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생률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지만,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기록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양육에 열악한 환경임을 시사한다. 많은 전문가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에 있는 미혼모의 수는 2만 132명에 달함에도 한국 사회는 한부모 가정을 '비정상'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정부 지원이 있음에도, 보조 시스템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혼모와 그 아이를 위한 가족 센터는 전국에 244곳이고, 미혼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미혼모자 시설은 전국에 약 60곳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위기임신청소년들은 정서적, 재정적, 환경적으로 자신과 자녀의 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기본법 제1장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5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나이로 규정되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아이 돌보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사회적 시선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안학교의 수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그들의 사회 진출 저하 및 저소득을 초래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1)]

국내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나래희망학교를 비롯하여 총 17곳의 학생 미혼모 위탁 교육 기관이 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래희망학교의 강영실 원장은 2016년 한 인터뷰에서 나래희망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학생이 어른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해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게 된다며 위탁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청소년 미혼모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탁아모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았다.[2)]

---

1) 김정희, 김향미, 청소년 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3호 109-132쪽,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115-119쪽.

2) 지성배, 「나래대안학교…"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심을 길러 세상을 밝힌다"」, 『에듀인뉴스』, 2016.12.20.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5.

영국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청소년 미혼모 수를 기록한 이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적 전략인 Teenage Pregnancy Strategy를 수립, 시행했다. 영국 정부는 미혼모의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 위험성 감소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청소년 부모들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현재까지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오고 있다. 한국의 대안학교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Pupil Referral Unit(PRU)을 통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된 학생들을 모아 교육을 진행하며, 청소년 미혼모들 역시 부족한 학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Care to Learn 사업, Discretionary Learner Support(DLS) 등을 통해 경제적 도움과 실질적 육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도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교육 지원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일랜드는 보건아동부 산하에서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TPSP)를 시행하여 10대 부모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재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부모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8,995명의 어린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등록금이나 교통비를 지원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즉,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청소년 미혼모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일랜드의 사례는 한국의 미혼모 정책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본 팀은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실질적 운영 방법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미혼모 지원기관과 단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움으로써 한국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더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2. 탐사주제 및 목표

팀 E-ther의 탐사 주제는 <국내 위기임신청소년 학습지원 봉사 프로그램 및 이화여대 내 복지 개선 제안: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아일랜드의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의 학습권적 측면에서의 성공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이다. 본 팀은 미혼모 중에서도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청소년 미혼모에 집중한다. 탐사하고자 하는 영국과 아일랜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각각 미혼모 학습권 보장만을 위한 지침인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TPSP)' 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진행 중이다. 국내 위기임신청소년에 주목하여 한국과 영국, 아일랜드의 청소년 미혼모 학업 지원 제도에 대해 비교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에 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E-ther에서 계획하는 탐사 후 결과물이자 목표는 아래의 두 가지이다.

1)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미혼모 지원 개선 제안서 제작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24세 국내 미혼모의 수는 1,075명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후 홀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육적 지원 역시 주거, 의료, 취업 등의 지원에 비해 비활성화되어있다. 해당 사태는 교육이 뒷순위로 평가된다는 점과 국가의 지원 없이 민간의 힘으로만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점 등의 복합적 원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미혼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기 쉽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 '품'에 가입했을 때,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정보는 미미했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미혼모, 학생부모 지원 정책으로는 임신 및 출산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있으나, 이외의 적극적 지원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 최초, 최고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서 미혼모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선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영국의 Warwick University 내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느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상담과 학비 지원, 학습 장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본 팀은 영국 대학교의 미혼모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미혼모들에게 학비, 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임산부 및 미혼모 학생 지원 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더욱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화여자대학교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먼저 미혼모의 지원 방안을 구

체적으로 마련한다면, 학업을 이어가는 미혼모에 대한 국내적 인식도 개선되리라 생각된다.

2) 미혼모 대안학교의 시스템 보완 및 이화여자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봉사 프로그램 제안

국내에는 청소년 미혼모 대상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서대문구에는 나래희망학교가 위치한다. 나래희망학교는 1960년 미혼모자의 출산, 양육, 교육,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 장로교 반애란(Mrs. Eleanor Van Lierop) 선교사가 설립한 미혼모 위탁시설인 애란원이 운영하는 교육 시설이다. 나래희망학교는 현재 총 25여 명의 위기임신청소년들이 재학 중이고, 졸업생을 꾸준히 배출해 그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나래희망학교는 입학 절차 문제와 자원봉사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타 미혼모 대안학교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소 후 위탁 교육 신청제도 등 어른들에게 청소년 미혼모들이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정책 지원으로 대안학교의 근로자들을 증원해 학생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 문제점 중 하나인,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의 봉사 연계 프로그램 진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도우며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팀은 국내 미혼모 대상 대안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영국 대안학교 시스템을 적용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기존 문헌 연구

1) 기존 논의 요약 및 정리

(1)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2018)[3)]

해당 논문에서는 사회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받는 청소년미혼모에게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미혼모에게 일어나는 사회적 권리 침해 현상을 살펴보고 Axel Honneth의 인정이론에 기반하여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을 찾고 법률을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 인정이 실현되기 위한 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논문이 마무리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타인과 교류하며 얻는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치를 평가받고 연대를 느끼고, 정체성을 획득하고, 긍정적 인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을 느낀다. 자아실현 또한 이루게 되는데, 자아실현의 필요조건이 타인의 긍정적인 태도, 즉 인정이다. 자아실현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미혼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미혼모의 자아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사회 문제로 여겨 이들의 사회적 인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소년미혼모의 재학에 대한 긍정적 인정은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추측하였다.

논문의 필자는 헌법, 교육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세 가지를 살펴보며 그들이 권리를 누려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항목에서 청소년미혼모의 권리를 재조명하고, 실제로 권리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꼬집었다. 사회적 인정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방향성으로 “청소년미혼모의 학업지속, 청소년의 미성숙함 등의 특성상 다른 한부모가족과는 다름을 인정하여 임신 및 출산, 학업 지속 등의 법적 보장이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사회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맞서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청소년미혼모자 가정을 지원해 온 서구국가의 정부적 개입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가정의 건강가정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김정희,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13호), 2018.

(2)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2015)[4)]

해당 논문에서 실행한 연구의 목적은 미혼모들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임신출산위기지원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밝혔다. 문헌 연구와 관련 홈페이지 탐색으로 선행 연구 고찰을 실시하고 대상자 16명과의 심층 면접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은 20세에서 45세까지의 미혼모였으며,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각 사례에서 나타난 이슈를 통합 정리했다. 미혼모의 영유아 유기, 비밀입양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변화가 부정적 영향으로 다가올 것을 염려하여 기존의 지원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미혼모의 사회적 인식과 복지서비스 개선은 지속해서 강조되었으나 크게 변화를 불러오진 못했고, 2011년에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해당 조항은 미혼모들이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는 기본생활시설 33개 중 16개가 운영을 못 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우리나라 미혼모자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지역별, 주체별 현황, 미혼 부자 거점기관의 서비스 추진 내용 등을 정리하고 각 내용의 한계점을 파악했다.

대상자들은 출산과 낙태 갈등위기와 선택, 서비스 정보 및 지원 기관 탐색 과정과 위기 경험, 임신 전·후 건강관리와 위기 경험, 입양과 양육 갈등위기와 양육 지원, 임신·출산위기 지원시스템에 대한 욕구 등 임신과 양육까지의 전반에 걸쳐 위기를 경험했다. 필자는 위 경험들을 정리하며 대부분 미혼모가 출산과 아기 장래 결정에 대한 갈등과 사회적 편견에 두려움을 느꼈고, 출산과 입양 및 양육 지원 관련 정보의 부족함과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임신출산위기지원콜센터 설립, 지역 사회 미혼모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정비, 기존의 거점기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확충, 미혼모 지원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다양화하기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

---

4) 성정현,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권 제2호, 2015, pp. 277-309.

(3)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2017)[5)]

해당 논문은 입양 중심에서 양육 중심으로 변화한 미혼모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하고 해당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원 수준에 대한 부족한 점을 꼬집고 있다. 필자는 연구의 필요성과 양육 미혼모에 대한 공적 지원의 의의를 정의 내린 후 미혼모 지원 정책의 전개 및 변화와 현황, 한계까지 연구했다. 미혼모가 여성에 대한 포괄적 정책 속에 포함되어 지원받았던 시기(1952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 정책의 변화를 다루었고, 현재(2017)의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한 곳에 정리하였다.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필자는 미혼모 지원 수준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충분하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미혼모가 시설에 나온 후 자립하기 위해선 뒷받침되어야 할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기에 법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의 액수 자체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들에게 충분히 다가가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서비스 미흡에 더불어 존재하는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취업/창업 서비스의 미비는 정책대상의 협소성 때문이라는 원인을 제시하며, 민간 비정부 기구들과의 협력이 동반된 미혼모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며 연구를 마무리했다.

(4) 청소년미혼모가 지각하는 학업복귀의 장애요인(2013)[6)]

해당 논문의 필자는 청소년미혼모가 학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탐색한 후 대상자 25명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개념도를 도출하였고 이를 양적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자는 청소년미혼모가 '육아-학업' 차원과 '내적-외적' 차원에서 학업 복귀의 장애 요인을 지각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장애 요인을 5개의 군집으로 분류했을 때 가장 크게 인식된 군집은 '가족의 심리, 경제적 지원 부족'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군집으로는 '육아와 학업 병행의 어려움', '학업에 대한 낮은 기대', '학교 복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업에 대한 효능감 부족'이 있었다. 해당 결과를 보고 필자는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해결책임을 강조하였고, 양육 자원봉사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

5)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 pp.97~115.
6) 박현미, .「청소년미혼모가 지각하는 학업복귀의 장애요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

2) 기존 연구의 한계점

미혼모 지원 정책, 특히 교육 지원 방향을 연구한 자료들은 2010년대 이후 발표된 바가 거의 없어 시의성 있는 연구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시대에 걸쳐 공통으로 나타날지라도 관련 법안, 정부와 기관의 지원 현황, 미혼모의 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등은 10년 내로 바뀔 수 있다.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 사회의 상태를 탐구한 논문이 2020년대 이후로 활발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본 팀의 탐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 논문의 저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분야의 연구를 그만두어 자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 즉, 이전에 활발히 연구하던 연구자들도 연구를 이어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다음 한계점은, 본 팀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명쾌히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미혼모가 지각하는 학업복귀의 장애요인(박현미)”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가 적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결론으로 도출된 해결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차적 한계가 발생한다. 모든 연구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 등의 두루뭉술한 문제점 지적과 필요성 주장에 그쳤다.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뿐, 구체적인 필요성 주장과 그 예상효과를 계산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순 없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여러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라는 형식의 문구도 여럿 발견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끼리도 공유하는 정확한 실태 자료라든가 통계 자료 등이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총괄보고서(백혜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4세 이하 청소년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양육미혼모는 대략 13,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7]라고 언급한 부분이나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과 학업 지속 선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김광수)”에서의 ‘양육 미혼모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8] 등 연구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분야의 특성상 보안이 중요할뿐더러, 자료를 남기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때도 많아 연구에 얼마 이상으로 추측한다는 추측성 자료를 쓰게 되는 것이다.

---

7) 백혜정, 「청소년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12권 제17호, 2012, pp. 31.

8) 김광수,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과 학업 지속 선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11권 제2호, 2023, pp. 148.

3) 본 연구의 기여 방향성

추측성 자료의 한계, 연구의 중단 등은 학생의 신분으로써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나, 본 팀의 연구는 두 가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첫째, 자료의 최신화이다. 2010년대와 2020년대의 연구들을 살펴보며 통계, 지원 정책 등의 현황을 확인했다. 통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지원 정책이 지금도 같은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했다. 둘째, 기존에 방향성 제시 정도로만 내놓았던 해결책을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본 팀의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과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는 특정한 공간과 목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효과를 계산하기에도 적절한 범위라고 생각된다.

2. 국내 탐사

1) 국내 탐사 내용 정리

(1) 법률적 근거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07년에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도 한부모의 권리와 정의를 말하고 있으며,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a. 헌법

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b.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장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견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6.>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2.>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초·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6.>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 16.> [본조신설 2011. 4. 12.]

(2) 국가적 제도[9)]

a. 미혼모 보호

시설 유형	시설 수	주요 기능	보호기간(연장 기간)
출산 지원	26	임신,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자녀(만 3세 미만)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집중지원	1년 6개월 *종전 미혼모 공동시설 2년(1년)
양육 지원	38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를 위한 생활시설로 자녀 양육 관련 서비스를 집중지원	3년(1년)

[표 1] 국내 미혼모 보호시설 유형

- 지원 내용: 숙식 무료 제공, 분만 의료 혜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행,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 제공)

- 입소 절차: 입소 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 입소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를 의뢰 → 해당 시설 입소 담당자와 상담 후 입소 결정

9)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71.do, 2024년 7월 16일 검색.

b.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한무보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총 5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 학생 미혼모 교육

- 교육 대상: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

- 신청 절차: 기존학교에서의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 위탁교육원에서 수탁 결정 통보 및 교육 진행 → 기존학교의 수료여부 통보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역별 현황과 신청 절차를 알려줄 뿐, 직접적인 교육 지원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지역	시설명
서울	나래희망학교
부산	마리학교
대구, 경북	가톨릭푸름터
인천	인천자모원
광주	엔젤하우스
대전, 세종	대전자모원
울산	미혼의집물푸레
경기	아우름 대안학교
	나래대안학교
강원	마리아의집
충북	청주해오름마을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천안새소망의집
전북	민들레학교
전남	성모의집
경남	범숙학교
제주	사회복지법인청수(애서원)

[표 2] 국내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현황

(3) 서울특별시 지원 정책[10)]

a.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유사한 지원 내용이었으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만 24세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별 한부모 지원 내용은 상이했으며, 지원 정책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이다. 대부분 교육 부분은 대안학교와 사립 시설에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었다. 대안학교의 교육 지원 내용도 역시 대안학교 별로 상이하다.

2) 국내 인터뷰 내용 정리

(1) 고운뜰

고운뜰은 미혼모들의 양육 및 주거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다. 2007년부터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홀트고운학교도 함께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 고운뜰의 주요 기능으로는 양육 지원, 교육 지원, 상담, 자녀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운뜰 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시설 현황과 대안학교 중단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본 팀은 고운뜰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 취업 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학습 지원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미혼모들의 고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 중 고운뜰 원장은 교육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학력보다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단순히 검정고시나 대입을 위한 교과서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대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가르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 분야를 고려하여 봉사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커리큘럼을 결정하고자 한다.

고운뜰은 실제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다 중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단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안학교 시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고운뜰 원장은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담당 직원의 임금 지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처럼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 문제로 대안학교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대안학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10)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https://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reinforceCapa.do,2024년 7월 16일 검색.

는 봉사자 수 부족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인근 대안학교들과 협력하여 학습 지원 봉사 프로그램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가다 보면 인건비 부족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시각으로 미혼모 교육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애정에 대해서 튼튼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지대로 되지 않고 애정에 대한 결핍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수면 아래의 빙산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고,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사회 문제임을 깨닫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림 1] 고운뜰 내 주거 지원 시설의 모습

(2) 인천 자모원/바다의 별 대안학교

인천 자모원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로,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상담, 자립 지원, 아기 장래 결정 등이 있다.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하며, 자립 지원을 통해 미혼모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기 장래 결정을 도와주기 위해 입양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바다의 별 대안학교는 인천 자모원 내에 설립된 대안학교로, 미혼모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기본 교과목을 배우며, 공예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인천자모원/바다의 별 대안학교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기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천 자모원 원장님과 바다의 별 대안학교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팀은 인터뷰를 통해 학습 지원 봉사 프로그램 대상자 범위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인천 자모원에서는 대안 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는 사례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한 뒤, 직업을 얻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멘토멘티 봉사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대안 학교에서 출산지원센터까지 확대하여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도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 필요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인천 자모원 원장님은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업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처음 목표로 했던 고등교육 완수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따라서 미혼모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검정고시·대입·취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세분화된 프로그램은 미혼모들이 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 인천 자모원에서 실행 중에 있는 대학생 선생님과의 교육 프로그램이 미혼모들과의 수업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본 팀이 기획하고자 미혼모 시설과의 연계 봉사 프로그램이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E-ther

는 봉사자와 미혼모 학생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2] 인천 자모원 입구 모습

3) 교내 시설 탐사

교내 학생부모 또는 임산부 학생을 위한 휴게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교 홈페이지에 검색하였으나,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교내 주요 건물을 탐사하며 수유 및 휴게 시설의 위치와 현황을 확인해보았다. [그림 4]는 법학관 맘 휴게실의 모습이다. 문이 잠겨있었으며, 경비원께 열어달라 요청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좌) 법학관 107호 맘 휴게실의 입구

(우) 맘 휴게실의 내부 모습

이화캠퍼스복합단지에서도 수유실을 찾을 수 있었다. 여직원휴게실이라 적혀있었으며 수유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다. 학생이 수유를 목적으로 해당 휴게실을 사용하고자 하면 학생처에 요청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림 4] 이화캠퍼스복합단지 B203호 여직원휴게실의 입구 모습

3. 해외 탐사

1)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영국

영국은 'Teenage Pregnancy Strategy'를 시행하여 10대 청소년들의 임신을 줄이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팀이 인터뷰한 여러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은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 성공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였다.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여러 대학교들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학생부모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교 내의 전문가와 인터뷰하여 대학 내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효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내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의 현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는 직접 알기 힘든 영국의 정책 발전 과정과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사회 단체에서 느끼는 미혼모 교육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TPSP)'는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10대 부모들을 위해 자원 조달,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해주는 국가적 프로그램이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이해해 한국 정책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어 대학교와 국가에서 미혼모의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여러 대학에서도 학생부모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이드라인과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지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미혼모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의 현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는 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TPSP의 구체적 지원 방향과 특히 교육에서의 청소년 부모의 지원 방법에 대해 알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2) 해외 탐사 내용 정리

(1) 영국

a. 영국 청소년 미혼모 관련 제도[11)]

1996년 영국의 교육법 제7조에 따르면 임신 청소년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대면 학교 출석이나 원격 교육, 가정 학습과 같은 대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영국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는 2001년 학령기 부모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임신 중이거나 부모가 된 청소년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당국과 학교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학교는 출산 직전까지 가능한 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지원의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교에서 일어나던 차별을 명시적으로 제재했다. 이는 임신을 했거나, 최근에 출산했거나, 모유수유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불평등한 대우가 처음으로 불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b. Teenage Pregnancy Strategy[12)]

1999년에 도입된 Teenage Pregnancy Strategy 이후, 영국은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율을 72%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2020년 9월부터는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 모든 초등학교에서 관계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중등학교에서 관계 및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 RSE)을 제공하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모두에서 사춘기를 포함한 건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019년 6월, 학교를 위한 법적 지침이 발표되었다.

Care to Learn 프로그램은 교육에 복귀하고자 하는 20세 미만의 부모에게 보육 자금을 제공한다. Care to Learn은 청소년 부모 중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 고용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 비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설문에 따르면 Care to

---

11) Freedman, Jane, “Early pregnancy and education in the UK”,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20.

12) Teenage Pregnancy Knowledge Exchange, "Teenage pregnancy a short briefing", University of Bedfordshire, 2023.

Learn을 받은 청소년 부모 4명 중 3명은 프로그램 없이는 학습에 복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are to Learn을 받기 전에는 3명 중 2명이 NEET 상태였으나, 프로그램 이후 4명 중 1명만이 교육 과정을 마친 후 NEET 상태였다. NEET 상태의 감소는 'Care to Learn'을 처음 받은 때로부터 40개월 후에도 지속되었다.

Teenage Pregnancy Strategy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임신 청소년이나 청소년 미혼모의 60%를 교육, 고용 또는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인데, 영국의 대안학교인 PRU(Pupil Referral Units)는 미혼모들에게 집중 학습 지원, 다양한 과목에서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체력 단련이나 부모 교육과 같은 대체 커리큘럼, 현장 보육 시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정 교습을 포함하여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는 이러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PRU를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 당국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이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c. 영국 대학 규정

i.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13)]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은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정부 및 사회단체 등 대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함께 소개한다.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정리했다.

먼저,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임신 중인 학생이나 자녀가 있는 학생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Maternity/Paternity Pay 제도를 통해, Research Council funding이나 Queen Mary University funding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은 출산/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Universal Credit(UC)를 통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UC를 받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하지만, 1세 미만의 자녀를 책임지는 등의 특수한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Queen Mary Financial Assistance Fund (FAF) 제도에 신청할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필수 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FAF로부터 받는 모든 보조금은 수업 관련 비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

13)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Advice and Counselling Service", https://www.qmul.ac.uk/welfare/money-and-practical-advice/studentswithchildren/, 2024년 7월 16일 검색.

또한,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Mile End campus에는 보육원(Westfield Nursery)이 있다. 만약 학부 정부 학자금 지원 대상자이면서 부양자녀가 있고, 한부모이거나 저소득층 배우자가 있는 경우 Student Finance England(SFE)에서 보육료의 85%까지 지급한다. 받는 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상환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으로, 보육 지원을 통해 학생부모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ii. London South Bank University[14)]

London South Bank University(LSBU)의 <Student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adoption policy>를 통해 대학의 학생 임신, 출산, 양육 및 입양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임신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학생 및 예비 학생, 배우자가 임신한 학생, 입양이나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학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보나 지침을 찾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먼저 LSBU는 기밀 유지 조항을 통해 학생의 임신 또는 자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신중하게 취급되어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복지팀과 비밀리에 논의되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학교에 기밀로 알리게 되면, 건강 및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부나 대학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의 방사선 보호 구역 규칙에 따라 임신 기간 동안 아기에게 도달하는 방사선량을 1mSv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처럼 학생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학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적인 지원으로 책임자는 과목의 평가 및 시험에 있어서, 학생의 임신이 과제 마감일을 맞추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고려한다. 만약 학생의 임신이 평가 및 시험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체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출산 예정인 학생이 시험 기간 중 과제를 완료하거나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는 경우, 학생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막아서는 안 되며, 시험 중 임신한 학생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거나, 화장실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편안하고 지지력이 좋은 의자를 제공하는 등

14)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STUDENT PREGNANCY,MATERNITY, PATERNITY, AND ADOPTION POLICY』, LSBU website at http://www.lsbu.ac.uk/about-us/policies regulations-procedures and MyLSBU, 2022.

시험에 대한 임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이 출산 전후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협의하에 보충 학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장기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의 출산 및 입양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휴가 기간에 책임자는 학생 재정 지원팀과 협력하여 학생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산 및 입양 휴가 후 학습을 재개하는 경우, 성공적인 학업 복귀를 위해 학생은 과정 책임자와 함께 복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계획에는 학습 지원, 재시험 일정, 평가지 지원 등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학생 복지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ii. University of East London[15)]

University of East London(UEL)은 자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UEL의 Docklands 캠퍼스는 강의를 듣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보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 수당 및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학은 자녀가 있는 학생이 학습을 생활, 일, 돌봄 책임과 조화롭게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데, 먼저 여러 수업에서 파트타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저녁이나 주말에 파트타임 강의를 열어 학생의 근무, 승진이나 이직을 돕고, 학기 중에는 도서관 두 개를 24시간 개방하여, 학습 시간을 최대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온라인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가정에서 학위를 완료할 수도 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일부는 East London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오랫동안 학업을 쉬었던 경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New Beginnings는 12주간의 파트타임 프로그램으로, 일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고등 교육을 준비하여 다양한 학부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많은 학위 과정에서 Pre-entry courses and foundation years를 제공하여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부 학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15) University of East London, "Parents who study", https://uel.ac.uk/study/undergraduate/parents-who-study, 2024년 7월 16일 검색.

iv. Anglia Ruskin University[16)]

Anglia Ruskin University(ARU)는 가족 친화적인 대학으로 일부 캠퍼스에 자녀와의 동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잠글 수 있는 냉장고, 아기 수유 의자, 발판, 전자레인지 및 병·음식 가열기가 구비된 수유 시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여럿 존재하며, 학생회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자녀와 함께 방문한 경우 놀이 펜과 장난감 등을 빌릴 수 있다.

시설적인 지원 외에도 재정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ARU는 선호하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가능한 빨리 공개하고, 보육 계획에 맞게 시간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질문하며, 조언과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다.

(2) 아일랜드

a.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 (TPSP)

아일랜드는 현재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TPSP)을 시행 중에 있다. TPSP는 아일랜드의 10대 부모를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지원 서비스이다. 1999년, National Advisory Committe(NAC)에 의해 설립되었다. NAC의 초기 원칙은 가족이 없는 취약 계층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거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0대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Final Evaluation of the Teen Parents Support Initiative(2002)를 설립하여 10대 부모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 TPSP는 아일랜드의 11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고, Tusla, the Child and Family Agency, Health Service Executive(HSE)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본 팀이 인터뷰를 진행한 Treoir과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TPSP는 주로 19세 이하에 부모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보다 나이가 많은 일부 부모들도 상황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양육, 건강, 관계, 교육, 훈련, 보육, 주거, 사회복지 자격, 법적 문제 및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10대 부모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부모나 어린 부모와 관련된 다른 가족 구성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룹이나 일대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TPSP 직원들은 10대 부모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관과 연락을 하게 되면 담당자와 언제, 어디서, 누구

16) Anglia Ruskin University, "Support and facilities", https://www.aru.ac.uk/student-life/support-and-facilities, 2024년 7월 16일 검색.

와 만날 것인지 상의하게 되며 이는 홀로 만나도 되고 부부가 함께 만나도 되고 가족 구성원과 함께 만나도 된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직원이 방문할 수도 있고, 자신이 기관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처럼 10대 부모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만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상담사는 청소년 부모의 복지권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도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다.[17)]

TPSP의 주요 목적은 10대 부모가 중단된 학업을 완료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School Completion Programme (SCP)을 통해 자녀돌봄, 교재, 교통비, 교복 등을 지원한다. SCP는 Tusla's Education Support Services(TESS)에 지원을 받고 있으며 10대 부모들의 학업 완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Childcare Employment and Training Support(CETS)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 돌봄 서비스를 주당 €25(한화 약 3만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인 부모는 '모성관련 결석자를 위한 가정 내 교육비(Home Tuition Grant for Students on Maternity Related Absence)'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교사에게 최대 6개월 간 90시간 동안 지도 받을 수 있는 수업료를 지원해주고 있다.[18)]

Treoir에서 발간한 <Strategic plan 2019-2023>에는 TPSP를 아일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유럽 전체로 확장시키려는 계획이 적혀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의 나이를 24세 이상으로 높여 유럽의 모든 젊은 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 중에 있다.[19)]

<TPSP Annual Report 2022>를 살펴보면 아일랜드의 10대 출산율에 대한 수치가 적혀 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록이 나와있으며 2011년에는 172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점점 이 수는 감소하며 2022년에는 798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록을 볼 수 있다. 또한, 2022년에 TPSP로 도움을 받은 젊은 부모의 수는 643명이고 그 중 592명이 엄마이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는 TPSP는 8,995명의 부모들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젊은 부모 중 77%를 차지하는 수이다.[20)]

최근에는 10대 엄마의 출산이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TPSP에 대한 권장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많은 10대 부모들의 커뮤니티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

17) TPSP, The TPSP Operating Model, 2020, 2쪽.
18) 허민숙, 양육, 자립의 이중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부모 지원 과제, 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제 119호 제 4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14쪽.
19) TPSP, [TPSP Annual Report 2022], 2023, 10쪽.
20) TPSP, [TPSP Annual Report 2022], 2023, 9쪽.

10대들은 성인들에게 쓰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힘들기 때문에 분리된 서비스인 Jigsaw나 CAMHS 등을 진행 중이다.[21)]

b. Treoir[22)]

Treoir는 TPSP와 협업하여 아일랜드의 10대 부모에게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Treoir는 1976년 미혼모와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미혼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지원하는 서비스 연맹으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에는 미혼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차별을 경험하였다. Treoir의 창립 이후 아일랜드의 결혼 외 출산율은 전체 출산아 중 3.8%에서 41%로 급증하였다. 현재 Treoir의 비전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가 법에 따라 완전한 평등을 누리고, 그들의 법적, 시민적, 경제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모두 정당화되는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c. Trinity College의 미혼모 복지 서비스 제공

아일랜드의 Trinity College는 아이를 출산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첫 번째로, 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이 목록 내에서는 학생들이 금전적이나 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단체의 목록과 설명, 링크가 첨부되어 있으며 인터넷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목록에는 Barnardos, Gingerbread, One Family등 학생부모들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학교 내에서 임신을 한 학생부모들을 위한 'Student Parent Carer and Pregnancy Policy'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돕는다. 이는 학생들이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느낄 책임감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교 내의 정책은 부모가 되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임신을 하여 학교를 나올 수 없는 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구분하였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 본인이 학교에 문의를 하게 되면 학생에게 맞는 시간표를 짜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학생이 가정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시간표를 통해 아이를 돌보기 더 쉽게 하며 과제 제출일이나 시험 날

21) TPSP, The TPSP Operating Model, 2020, 2쪽.
22) Treoir, Treoir 2023 Annual Report, 2024, 6쪽.

짜와 같은 기한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아이를 더 편하게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다. 먼저, 대학 내의 수유실이 존재하며 그 위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으며 위치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가 학교 안에 위치하여 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

현재 임신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책 내에서는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밝힐 필요가 없으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 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강의, 실습 또는 시험에 결석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학년을 높이거나 시작하기 위해 모든 학업 및 전문적인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Trinity College는 산모에게 출산휴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각각 다르다. 특히, 대학원생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대 2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빠들에게도 휴가를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도 지원하고 있다.[23)]

23) Trinity College Dublin, Policy on Supports for Student Parents, Student Carers and Students Experiencing Pregnancy, 2023, 2-7쪽.

(3) 영국 및 아일랜드 대학 내 휴게 시설, 유치원 위치 탐사

영국과 아일랜드의 대학들은 가족 친화적 대학 캠퍼스를 지향하여 학내 수유실(Nursing room/parenting room)과 유치원(Nursery)를 설치, 학부생과 대학원생, 직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 그 수와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수유실과 유치원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었으며, 휴게 공간에서의 학생부모 모임을 학교 차원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영국 런던의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아일랜드 더블린의 Trinity College에 방문하여 각 학교의 수유실과 유치원 위치, 시설을 확인하였다. 수유실의 경우 학생 전용 출입 건물의 내부에 위치하여 직접 파악할 수 없어 유치원에 방문, 외부 모습과 위치를 확인하였다.

a. 영국 런던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Westfield Nursery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Westfield Nursery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녀를 위한 캠퍼스 내 유치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이용 가격의 5%에서 10%를, 학생들에게는 15%를 할인해주고 있다.

- 위치: 캠퍼스의 주 입구 중 하나인 Bancroft road 입구에 가까이 위치해있으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맡기고 학교에서의 일 또는 학업에 집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Westfiled Nursery의 입구 모습

b. 아일랜드 더블린 - Trinity College Day Nursery

- Trinity College의 Day Nursery는 1969년 아일랜드 최초의 직장/캠퍼스 내 유치원으로서 설립되었다. 최소 3달에서 최대 5년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교직원은 주 €199.53, 학생은 주 €129.74의 요금을 내게 되며, National Childcare Scheme(NCS)를 통해 국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위치: Trinity College Day Nursery는 기숙사와 경영대학(Trinity Business School)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넓은 건물을 이용하여 유치원 공간과 놀이방 공간이 나누어져 있다. 외부 놀이터까지 연결되어 어린이들의 놀이 및 휴식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 6] (좌) Trinity College Day Nursery 입구의 모습
(우) Day Nursery 표지판

3) 전문가 인터뷰 내용 정리

(1) St Michael's Fellowship

St Michael's Fellowship은 영국의 사회단체로, 어린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그들의 부모들을 돕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에 환경적으로 열악한 어린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 본 팀은 미혼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St Michael's Fellowship의 어린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인 Outreach Young Support Service에 대한 세부 내용과 프로그램 방식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미혼모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구성, 진행하였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이 있어 비대면으로 미혼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비대면 방법 실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인터뷰를 통해 어린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구체적 방안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고, 정책적 제언을 통해 미혼모 복지 서비스의 확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총괄 디렉터 Sue Pettigrew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St Michael's Fellowship에서 10대, 20대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Outreach Young Support Service는 저소득층의 어린 부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0년에 시작되었다. 기관 내부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적 지원 정책과의 연결을 지원하며, 대면 기반의 1대1 지원을 중시하여 지원 대상자들의 고립된 사회적 위치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구성한다. 1대1 지원을 바탕으로 단체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진정한 사회화의 어려움이 나타나 대면 만남을 재개, 강조하고 있다.

교육 지속을 위한 동기 부여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해 Sue Pettigrew는 10대 부모들의 의지 향상을 위해 기존에 St Michael's Fellow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에 성공한 부모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 그들을 모델로 하여 작은 성취부터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적 정책으로는 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Care to Learn Fund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지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영국의 한부모 가족, 특히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오랜 기간 실시해온 St Michael's Fellowship의 센터에서 진행된 Sue Pettigrew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영국의 정책적 현황과 실제 사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이전에는 10대 미혼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교육 지속 및 원적교 복귀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과 멘토링이 주요 내용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10대 미혼모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육을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성취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감을 불어넣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을 지속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Outreach Young Parent Support Services에 있어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의 근거를 사회화로 삼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자녀에게 1차적 사회화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도 나이가 어리다보니 대면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관찰하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어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단순 교육의 의미뿐만 아니라 10대 미혼모들과 자녀의 사회화, 그리고 동기 부여에까지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국가적 정책인 Care to Learn fund는 학생인 부모들이 학교 생활을 지속하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제 사례를 통해 양육의 지원이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재정적 측면에서의 유의미한 동기 부여가 되기에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그림 7] Sue Pettigrew와의 인터뷰 모습

(2) WILD Young Parents Project

WILD Young Parents Project는 나이가 어린 부모를 돕는 영국의 사회단체로,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의 협력과 더불어 미혼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WILD Young Parents Project의 CEO인 Jo Davies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단체가 진행하는 미혼모 교육 프로그램과 영국의 미혼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미혼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본 팀이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영국의 사회단체들이 미혼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를 인터뷰하여 국내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국내 사회단체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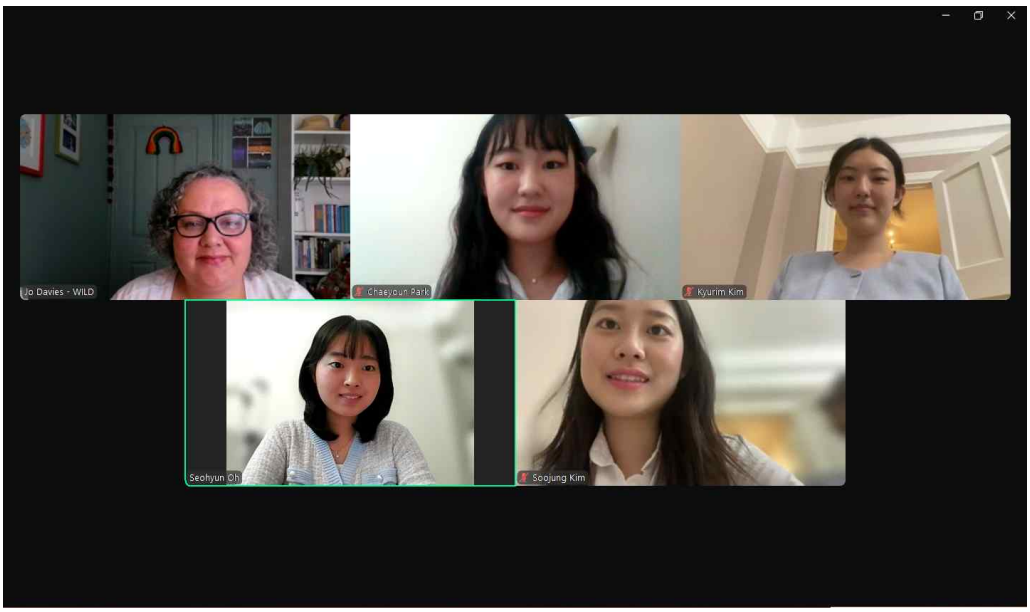
영국의 10대 부모들에 대한 국가적, 기관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Jo Davies는 어린 나이에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 16세에서 18세의 나이에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 수가 많아 기본적인 문해력, 수리 능력의 부족으로 다시 교육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WILD Young Parents Project에서는 기본적 의식주 제공, 상담과 더불어 언어, 수학 등의 기본적 학업 능력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Jo Davies는 저학력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모의 가난은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대 미혼모들의 자발적 학습 지속을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깊은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0대 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양육의 부담이므로,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과 양육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교육자들이 미혼모들의 트라우마와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Jo Davie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 및 출산의 과정을 거친 미혼모들은 장기간 교육에서 벗어나게 되다 보니 또래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본적인 문해력, 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 학력의 부족이 이후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0대 미혼모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있어 주요 목적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학력을 쌓는 것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10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그들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10대 미혼모들은 기존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체적인 큰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동기 부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이들의 상황을 표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깊은 대화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전에는 한부모 가정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가정의 문제로 취급받던 미혼부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원 확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미혼모의 수가 훨씬 많기는 하나, 미혼부들에 대한 정책 및 의식 변화도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 8] Jo Davies와의 인터뷰 모습

(3) Alison Hadley 교수

Alison Hadley 교수는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 시행에 있어, 관련 연구물을 발행하고 정책 제언을 한 최대 연구기관인 Teenage Pregnancy Knowledge Exchange의 총괄 디렉터이다. 영국 Teenage Pregnancy Strategy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내용과 우리나라에서의 미혼모 제도 도입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팀이 기획하고자 하는 대안학교 연계 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Teenage Pregnancy Strategy의 Sure Start Plus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점과 한계점에 대해 들으며, 봉사 활동 기획에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영국의 미혼모 정책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Alison Hadley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 팀은 영국의 다양한 미혼모 정책과 Sure Start Plus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 밀도 있는 봉사 활동 제안서와 한국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완성할 수 있었다.

Relationship and Sex Education(RSE) 프로그램이 중시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Alison Hadley 교수는 영국에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이 많다는 문제가 존재했기에 성관계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더 나아가 관계에서의 동의, 그리고 피임과 낙태에 대한 지식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고 답하며,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는 단순히 10대 임신·출산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10대들이 임신과 출산, 더 나아가 관계에 있어 선택권을 갖출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미혼모 및 학생부모에 대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선택하지 않은 10대의 임신, 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과 관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수록 임신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한국에서도 지역별로 복지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각지대에서 더욱 10대들의 원치 않는 이른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지방 정부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책의 변화에 앞서 현 실태를 조사하고 통계를 계속하여 최신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한 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 자료가 축적되는 것은 곧 그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의미하고, 국가적 또는 학교의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근거이자 기반이 될 수 있기에 지속적 설문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림 9] Alison Hadley 교수와의 인터뷰 모습

(4) Marie-Pierre Moreau 교수

Marie-Pierre Moreau 교수는 Anglia Ruskin University의 교수이며,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특히 여성학에 관심을 두어 대학 내의 젠더 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물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물을 통해 학생부모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대학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본 팀이 작성한 이화여자대학교 복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확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을 다니는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듣고, 한국 대학들이 극복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질문하여 가이드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한 첨언을 들을 수 있었다. Marie-Pierre Moreau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위기임신청소년 대상 복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본 팀이 개선이 필요한 내용과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핵심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Marie-Pierre Moreau 교수는 교내 학생부모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모유수유, 자녀와의 휴식이 자유롭게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교내 학생부모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학업 유지 및 심리적 안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며, 학생 친화적 캠퍼스를 만드는 첫 단계로서 소속감 형성과 학생부모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강조했다. 학교 생활에 있어 다양한 편의 시설 이용 혹은 복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학교에서의 안정감을 보다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중 학생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구의 일부로 학생부모, 더 나아가 돌봄 의무를 가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와 다큐멘터리 영상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세계 각국에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국내에도 학생부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전시회의 형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Marie-Pierre Moreau 교수는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국내에서도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비교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기에 모든 사람이 겪는 돌봄의 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보다 널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그림 10] Marie-Pierre Moreau 교수와의 인터뷰 모습

(5) Treoir

Treoir은 아일랜드의 국가 기관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헌법 및 법률상 결혼한 가족을 가족의 기본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에서 지키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돕고 있으며, 결혼한 부모와 미혼인 부모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Teenage Parents Support Programme은 국가의 자문 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를 바탕으로 시행되는데, 각 정부 기관의 인사들과 Treoir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 그리고 실제 부모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10대 부모,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를 비롯하여 실제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고, Treoir는 그 중 하나이며, 더블린을 비롯한 많은 아일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본 팀은 TPSP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Treoir에 방문해 TPSP의 주요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과 현황에 대해 듣고자 하였다. 특히, 미혼모의 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어 TPSP 학업 지원 프로그램인 School Completion Programme(SCP)의 한계점과 보완점,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본 팀이 하고자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위기임신청소년 대상 복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보완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있어서 학업을 완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며 본 팀이 하는 탐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Treoir와의 인터뷰를 통해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과 연계 활동 방식, 아일랜드의 10대 부모의 규모와 필요 자원, 10대 부모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알리는 방식 등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아일랜드의 20세 이하 출산율은 4% 정도이고 대부분의 10대 부모들, 특히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양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였다. 가장 어린 자녀가 7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family payment가 존재하는데, 미혼모의 근로 장려를 위해 교육 또는 근로해야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 양육과의 병행이 어렵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TPSP의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관계에 TPSP를 녹여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부모와 다른 부모 간의 관계 형성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신뢰 관계 유지와 참여 독려에 큰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하는 것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정보 링크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많은 10대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sns를 주요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를 이러한 sns 플랫폼에서 찾고자 하는 만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sns콘텐츠로서 주요한 정보를 홍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TPSP와 관련된 정보는 본인이 해당자가 되어 필요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기에, 필요할 때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10대 부모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기에 홍보 및 정보 접근성을 특히 강조하였는데, 자신에게 그 정보가 필요하기 전까지는 가까이 있어도 모르는 것이기에 필요할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성, 임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인 한국의 청소년들도 대부분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 웹사이트에 검색하는 것으로 얻곤 하는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 검색 결과가 최상단에 뜨도록 하고, 10대 이용률이 높은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라고 느꼈다. 양육과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시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지원을 강조하는 아일랜드의 정책처럼 국내의 청소년 부모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성공적인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Treoir 구성원들과의 인터뷰 모습

(6) Single Parent Rights

Single Parent Rights는 한부모를 돕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영국의 사회단체이다. 특히, 한부모를 위한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다양한 단체와 협력 중에 있다. 단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가장 주로 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한부모라는 정체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평등법에 한부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캠페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다 폭넓게 한부모 가정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단체가 과거에서부터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어떠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한국과의 차이점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며 본 팀이 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언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

Single Parent Rights는 최근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져 많은 이들이 그들을 대단하다고 표현하고는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부모들이 혜택을 무료로 가져가는 사람들(benefit scroungers)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도 많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생겨난 것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에 보다 호의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정책 변화를 위한 이해와 지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평등법에서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이 국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새로운 정책 개발에 있어 큰 근거가 되고, 차별에 대해 한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의 상황을 비추어 보자면, 대부분의 한부모 대상 정책변화는 보편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지만 영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복지 혜택 지급이 다른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통일과 10대, 20대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했다. 정책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삶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결정에 그들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변화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나이가 어린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 그리고 가정 생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서 평등법에의 한부모 가정 포함을 강조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이었으며, 법제화를 통해 국가적인 인식 변화와 생활비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내고자 함이 의미 있었다. 평등법 개정 및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복지 혜택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노동의 양을 맞추고, 충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양육과 노동을 병행함에도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한부모의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복지 제도의 개편과 양육비 지원의 중요성 또한 알 수 있었다.

5. 탐사의 의의

1) 현장감 있는 최신 자료

현재 한국의 미혼모 관련 논문과 자료들이 대부분 2010년대까지만 존재해 최근의 미혼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한, 예전에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던 전문가들도 미혼모와 관련된 연구를 멈춘 상태여서 조언을 얻을 수 없었다. 해외 탐사를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최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미혼모 정책들을 알 수 있었고, 가장 필요로 했던 최근 동향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최신 자료들을 통해 현재 미혼모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국내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논의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해외의 전문가들이 어떠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미혼모 관련 지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최신 동향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국내의 정책 발전 방향성과 이화여자대학교 내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중요하다.

2) 실질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해외 탐사를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미혼모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아일랜드의 TPSP에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한 Alison Hadley와 Treoir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어떻게 미혼모 정책을 발전해 왔고, 시행착오와 어려움, 한계점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Alison Hadley와의 인터뷰에서 미혼모만을 담당하는 부서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제언을 할 수 있었다. 더하여 이를 통해 이화여자대학교 내의 미혼모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고, 한국의 미혼모 관련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자료 조사에서 찾을 수 없었던 다양한 사례 수집

논문집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공식적인 문서에는 언급하기 어려운 미혼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례나 이야기 등 문헌 조사로 찾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고, 이는 해외 탐사에서 인터뷰하며 수집할 수 있었다. 실제로 St Michael's Fellowship과의 인터뷰에서 주거 부족 문제의

사례로 영국에서 50대 남성과 집을 공유해서 쓰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현재 미혼모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위험에 처해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

4) 시야 바깥의 추가적인 지식

국내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와 관련된 국내 정서를 알고 있었지만, 학부생 신분으로서 편협한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내 조사를 통해 미혼모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교육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해외 탐사를 통해 교육을 받기 위해 주거 문제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문제를 해결해야 미혼모가 교육을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본 팀은 자연스레 교육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교육을 받기 위해 어떠한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피드백을 통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시야 바깥의 추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는 결과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6. 정책적 제언

1) 근본적 해결책: 성, 관계 교육의 국가적 확산

(1) 상호존중, 가정 교육 등

Alison Hadley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성교육을 일찍 시작할수록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지식과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관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성교육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 원치 않은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성교육이 어려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그저 과정과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만 진행되고 있다. 모든 과정은 인간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과 상호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결혼의 본질과 가정생활,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

(2) Relationship and Sex Education(RSE) 참고

Relationship and Sex Education(RSE)은 영국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이며, 지역마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영국 정부에 의해 2019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되었다. 성과 교육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단순 성교육보다 폭넓은 관계적 교육이 포함된 형태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관계를 맺는 기반이 되는 정보, 기술, 가치관 등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RSE의 의도와 수업 내용, 실행 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홍보 방안과 내용

(1) 길거리 포스터, sns활용 등

국내에 다양한 미혼모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길거리에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특히 10, 20대가 자주 사용하는 SNS를 활용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홍보의 사례로, 아일랜드의 미혼모 지원 기관 Treoir은 정보 제공을 위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SNS를 주요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다.

(2) 전시 활동

지원 정책 내용을 만화와 같은 스토리가 담긴 시각 자료로 전시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글보다 그림이 읽는 이의 이해도를 높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좀 더 받아들이기 좋은 방향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Anglia Ruskin University의 Marie-Pierre Moreau 교수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학교의 지원 정책을 그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그림은 학교 복도에 전시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다.

(3) 홍보에 있어서 지원받는 것이 낙인이 아니라는 메시지 전달 및 인식 변화 필요

지원을 받는 미혼모의 입장에선 지원이 곧 사회적 낙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지원 정책 내용을 홍보함과 동시에 낙인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미혼모가 지원을 받아들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홍보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3) 인식 개선

(1) 미혼모 본인의 측면

정부와 시설 등, 필요한 경우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목표하는 과업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미혼모 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돌봐야 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세움으로써 돌봄 대상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역시 필요하다. 지원 정책 홍보 등으로 미혼모의 책임 의식과 의지를 쌓도록 도와야 한다.

(2) 사회적 측면

최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선행 연구와 지원 시설 관계자, 해외 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부정적 인식은 주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해당 상황이 초래된 것은 미혼모의 과오라는 오해, 미혼모가 무료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오해, 미혼모에게 호의적 정책을 펼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오해 등이 있다.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3) 학교에서의 인식 변화

미혼모의 학업 복귀에 가장 큰 장애물이 학교에서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혼모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교직원들의 의식 개선 및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서 미혼모를 지원해야 하는 역할인 만큼, 미혼모의 상황을 깊게 이해해야 할 뿐더러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동급생들의 배

려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교직원의 이런 역할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

4) 국가적 지원 확산

현재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전적 지원에 있어서 할당된 지원금이 적고, 지원 분야나 지원 가능한 조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본 연구에서 여러 사회 단체와 연구진들이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학비, 양육 비용, 주거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조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Marie-Pierre Moreau 교수가 학생부모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공이라고 강조했듯이, 국내 대학에 수유 시설이나 가족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가족친화적인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교내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의 수를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5) 중앙-지방 정부에서의 정책적 집중

WILD Young Parents Project의 Jo Davies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청소년 미혼모들은 기존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거나, 예기치 못한 신체 변화를 급격하게 겪으면서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상황을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Alison Hadley 교수가 복지 공백을 줄이는 방법으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중앙 정부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 기구를 만들고, 지방 정부에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축적해나간다면 이러한 관심이 모여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과물

1)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

본 탐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던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를 완성하였다. 본 제안서는 사업 목적, 사업 개요, 추진 방향, 일정, 보상의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2장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따라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휴학이나 자퇴를 종용하는 행위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학습권 단절로 귀결된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제1장 제3조의 학습권, 제1장 제4조의 교육의 기회균등 조항들을 통해 이 제안서의 법률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천 자모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출산지원센터에서도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돕고자, 봉사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대안학교에서 출산지원센터까지 확대했다.

St Michael's Fellowship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에게는 동기부여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무조건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또래 대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따라서 봉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위한 교육 봉사가 아니라, 2:2 멘토멘티 형식으로 진행된다. Outreach Young Parent Support Services가 사회화를 이유로 오프라인 만남을 지속해왔던 것처럼 교육을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성취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감을 불어넣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지속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실제 인천 자모원에서 실행 중에 있는 대학생 멘토와의 교육 프로그램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혼모들과의 수업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본 팀이 기획한 미혼모 시설과의 연계 봉사 프로그램이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상호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기획서

E-ther

1. 사업 목적

1) 정기적인 방문 봉사를 통한 교류 활동으로 대안학교들의 현 문제점 중 하나인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미혼모 시설과 대안 학교에서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미혼모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봉사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 경제적 어려움 및 상황적 요인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위기임신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교 기초 교육 및 더 나아가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습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위기임신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위기임신청소년 외에도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하고자 한다.

4)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임신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또래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 체험, 심리 안정 등의 기회 제공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심리적, 사회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1) 사업명 : 이화여자대학교 연계 ooo(기관명) 학습지원 교육 봉사 프로그램

2) 사업 기간: 0000.00.00 ~ 00.00

3) 장소: ooo(기관명)

4) 대상 :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 모집 부문 : 국어, 수학, 영어, 컴퓨터(코딩)

6) 주요 활동 내용 : ooo(기관)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수업 봉사자 및 2대2 매칭으로 멘토 멘티 활동 프로그램 진행

3. 추진 방향

1) 자원 봉사 활동 계획 수립

- 수업 봉사는 각 주차에 맞게 수업 내용 및 계획 수립
-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조끼리 협의 후 활동 횟수 및 계획 조정

2) 자원 봉사 활동 진행

- 봉사 리더 선정을 통한 원활한 봉사 활동 도모
- 각 신청한 과목에 맞는 수업 봉사 진행
- 교육 내용은 자율적으로 준비함
-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각 조끼리 자율적으로 활동 진행하고, 활동 후 활동 일지 작성 하여 담당 실무자에게 제출

4. 일정

내용 \ 기간	차수	9월	10월	11월	12월
대상자 매칭					
세부 활동 계획수립					
봉사활동(수업 진행 및 멘토멘티)	1차				
	2차				
	…		…		
중간평가	8차				
	…		…		
	16차				
활동 총결평가 (소감 나누기 등)					

[표 1] 교육 봉사 프로그램 일정표

[그림 12]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기획서

2)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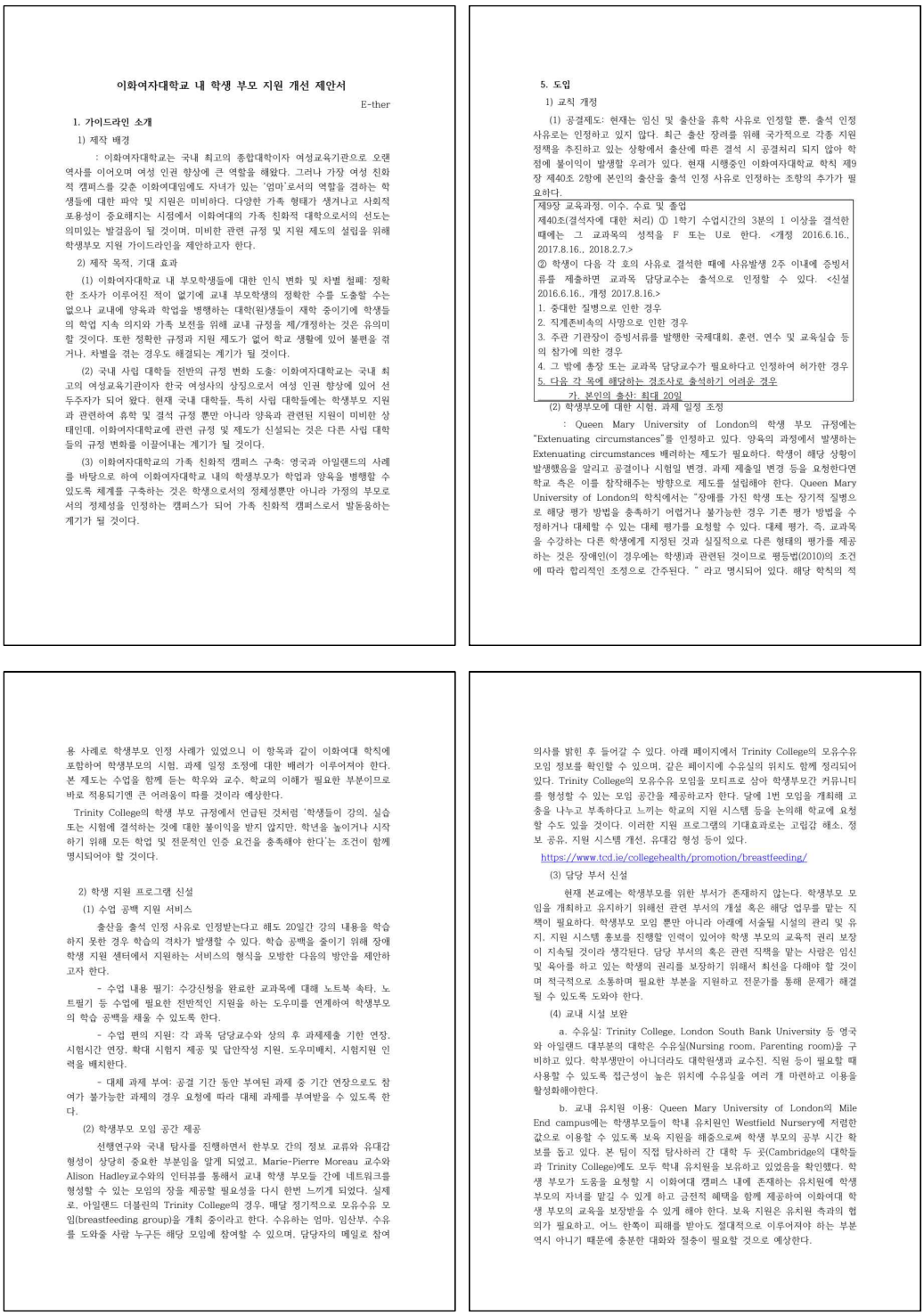
이화여대의 학생부모를 위한 시설이 존재하는지 찾아보던 중 이화여대가 여성 대학원생을 위한 풀 케어 시스템(full care system)을 신설했다는 2020년 기사를 발견했다.[24] 자세한 내용과 현황을 알기 위해 후속 기사와 학교 홈페이지, EWHA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해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풀 케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풀 케어 시스템이 2020년 기사처럼 마련이 되고 진행이 됐더라면 이것을 학부생의 범위까지 넓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조금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여성 교육 기관으로서, 여성 친화적 캠퍼스에서 더 나아가 가족 친화적 캠퍼스로 나아가기 위해 양육 또는 임신과 학업이라는 두 가지의 의무를 짊어진 학생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본 팀은 교내 시스템과 국가적 차원의 규정 현황을 조사하고 영국 대학들의

24) 매일경제, “이화여대 수유시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9334834, 2024년 7월 16일 검색.

사례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출산을 공결 사유로 인정하는 방식으로의 교칙 개정, 학생부모에 대한 시험 및 과제 일정 조정, 수업 공백 지원 서비스, 학생부모 모임 공간 제공, 담당 부서 신설, 교내 시설 보완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을 제안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 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E-ther

1. 가이드라인 소개

1) 제작 배경

: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종합대학이자 여성교육기관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여성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가장 여성 친화적 캠퍼스를 갖춘 이화여대임에도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 및 지원은 미비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화여대의 가족 친화적 대학으로서의 선도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며, 미비한 관련 규정 및 지원 제도의 설립을 위해 학생부모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작 목적, 기대 효과

(1) 이화여자대학교 내 부모학생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차별 철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교내 부모학생의 정확한 수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교내에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이기에 학생들의 학업 지속 의지와 가족 보전을 위해 교내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규정과 지원 제도가 없어 학교 생활에 있어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겪는 경우도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국내 사립 대학들 전반의 규정 변화 도출: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이자 한국 여성사의 상징으로서 여성 인권 향상에 있어 선두주자가 되어 왔다. 현재 국내 대학들, 특히 사립 대학들에는 학생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휴학 및 결석 규정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미비한 상태인데, 이화여자대학교에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신설되는 것은 다른 사립 대학들의 규정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이화여자대학교의 가족 친화적 캠퍼스 구축: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내의 학생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캠퍼스가 되어 가족 친화적 캠퍼스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도입

1) 교칙 개정

(1) 공결제도: 현재는 임신 및 출산을 휴학 사유로 인정할 뿐, 출석 인정 사유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따른 결석 시 공결처리 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9장 제40조 2항에 본인의 출산을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제9장 교육과정, 이수, 수료 및 졸업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① 1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8.16., 2018.2.7.>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출산: 최대 20일

(2) 학생부모에 대한 시험, 과제 일정 조정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학생 부모 규정에는 "Extenuating circumstances"를 인정하고 있다.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Extenuating circumstances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학생이 해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공결이나 시험일 변경, 과제 제출일 변경 등을 요청한다면 학교 측은 이를 참작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학칙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장기적 질병으로 해당 평가 방법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 방법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대체 평가, 즉, 교과목을 수강하는 다른 학생에게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이 경우에는 학생)과 관련된 것이므로 평등법(2010)의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으로 간주된다. "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학칙의 적용 사례로 학생부모 인정 사례가 있었으니 이 항목과 같이 이화여대 학칙에 포함하여 학생부모의 시험, 과제 일정 조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제도는 수업을 함께 듣는 학우와 교수, 학교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바로 적용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한다.

Trinity College의 학생 부모 규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학생들이 강의, 실습 또는 시험에 결석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학년을 높이거나 시작하기 위해 모든 학업 및 전문적인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 지원 프로그램 신설

(1) 수업 공백 지원 서비스

출산을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20일간 강의 내용을 학습하지 못한 경우 학습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형식을 모방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수업 내용 필기: 수강신청을 완료한 교과목에 대해 노트북 속타, 노트필기 등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도우미를 연계하여 학생부모의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편의 지원: 각 과목 담당교수와 상의 후 과제제출 기한 연장, 시험시간 연장, 확대 시험지 제공 및 답안작성 지원, 도우미배치, 시험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 대체 과제 부여: 공결 기간 동안 부여된 과제 중 기간 연장으로도 참여가 불가능한 과제의 경우 요청에 따라 대체 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부모 모임 공간 제공

선행연구와 국내 탐사를 진행하면서 한부모 간의 정보 교류와 유대감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고, Marie-Pierre Moreau 교수와 Alison Hadley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내 학생 부모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제공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Trinity College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모유수유 모임(breastfeeding group)을 개최 중이라고 한다. 수유하는 엄마, 임산부, 수유를 도와줄 사람 누구든 해당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메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후 들어갈 수 있다. 아래 페이지에서 Trinity College의 모유수유 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페이지에 수유실의 위치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Trinity College의 모유수유 모임을 모티프로 삼아 학생부모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달에 1번 모임을 개최해 고충을 나누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교의 지원 시스템 등을 논의해 학교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는 고립감 해소, 정보 공유, 지원 시스템 개선, 유대감 형성 등이 있다.

https://www.tcd.ie/collegehealth/promotion/breastfeeding/

(3) 담당 부서 신설

현재 본교에는 학생부모를 위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부모 모임을 개최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관련 부서의 개설 혹은 해당 업무를 맡는 직책이 필요하다. 학생부모 모임 뿐만 아니라 아래에 서술될 시설의 관리 및 유지, 지원 시스템 홍보를 진행할 인력이 있어야 학생 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장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된다. 담당 부서의 혹은 관련 직책을 맡는 사람은 임신 및 육아를 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교내 시설 보완

a. 수유실: Trinity College,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등 영국와 아일랜드 대부분의 대학은 수유실(Nursing room, Parenting room)을 구비하고 있다. 학부생만이 아니더라도 대학원생과 교수진, 직원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수유실을 여러 개 마련하고 이용을 활성화해야한다.

b. 교내 유치원 이용: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Mile End campus에는 학생부모들이 학내 유치원인 Westfield Nursery에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 부모의 공부 시간 확보를 돕고 있다. 본 팀이 직접 탐사하러 간 대학 두 곳(Cambridge의 대학들과 Trinity College)에도 모두 학내 유치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학생 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시 이화여대 캠퍼스 내에 존재하는 유치원에 학생부모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하고 금전적 혜택을 함께 제공하여 이화여대 학생 부모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육 지원은 유치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피해를 받아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3]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중 일부

8. 아쉬운 점 및 추가 연구 방향성 제안

1) 미혼부 지원

국내의 한부모는 대부분이 미혼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미혼부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또한 국내의 위기임신청소년과 이화여대 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자 하기에 오로지 미혼모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국내에 미혼모의 수가 훨씬 많기는 하나 미혼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한부모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2) 교육 기관과의 인터뷰 어려움

본 연구는 국내 위기임신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화여대 내 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여 자녀가 있는 교내 학생부모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 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대학이나 PRU와 같은 기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적극적인 컨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기관 운영 측면에서의 상이한 실정

인터뷰는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아일랜드의 TPSP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과의 다른 실정으로 인해 기관 운영 측면에서 봉사자 부족 문제에 관한 질문에서 해답을 듣지 못했고 보고서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III. 결론

1. 본론 요약

국내 논문들은 꾸준히 미혼모의 권리 침해 현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에게는 교육 받을 권리, 안전한 삶을 살 권리, 도움 받을 권리가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법이 일부 개정되며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미혼모가 임신, 출산을 겪으며 경험했던 권리 침해 현상, 특히 학업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양적 분석한 결과를 통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과거의 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본 팀의 연구가 해당 분야의 자료들을 현 상황에 맞춰 점검하고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위의 한계점을 극복할 것이라 기대된다.

헌법, 교육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미혼모도 타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혼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적 지원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주로 한부모 가정 지원과 함께 분류되며, 제시된 재산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상담 서비스도 함께 안내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지원 내용과 거의 유사했으며, 추가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추가 지원 아동양육비가 있었다. 교육 측면의 지원에 관해서는 금전적 도움 외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관련 시설의 사이트를 소개해줄 뿐이었다.

본 팀은 국내 미혼모 시설의 현황을 알기 위해 양육지원시설인 고운뜰과 출산지원시설인 인천자모원을 방문하였다. 현재 인천자모원에서는 바다의 별 대안학교를 통해 미혼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대안학교와 관련된 내용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고운뜰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운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나 입소자들에게 보통의 교육과 경험, 자녀 교육 지원 등에 힘을 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겪거나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미혼모의 경우에 사회에서 원활히 교류하고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도 알게 되었다. 미혼모들에게 고등교육보다 직업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교육적 방향성과, 멘토와 멘티의 열정이 같아야 프

로그램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인천자모원/바다의 별 대안학교 인터뷰를 통해 학습 지원 봉사 프로그램 대상자 범위를 설정하여 대안학교 외에도 검정고시를 지원해주는 출산지원센터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에 나가 학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점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생 봉사 프로그램의 장점을 알게 되어 본 팀이 기획하고자 하는 대학생 교육 봉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다.

국내 문헌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미혼모 정책과 대학 규정에 대해 찾아보았다.

첫 번째로 영국에 대한 내용이다. 영국의 교육법에 따르면 임신 청소년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만 16세가 될 때까지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DfES는 2001년 발표한 학령기 부모에 관한 지침에서 임신 중이거나 부모가 된 청소년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당국과 학교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0년 평등법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교에서 일어나던 차별을 명시적으로 제재했다.

1999년에 도입된 Teenage Pregnancy Strategy 이후, 영국은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신율을 72% 감소시켰다. 2020년 9월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관계 및 성교육을 제공한다. Care to Learn 프로그램은 교육에 복귀하고자 하는 20세 미만의 부모에게 보육 자금을 제공하여, 청소년 부모 중 NEET 비율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설문에 따르면 Care to Learn을 받은 청소년 부모 4명 중 3명은 학습에 복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로 Care to Learn을 꼽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Teenage Pregnancy Strategy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임신 청소년이나 청소년 미혼모의 60%를 교육, 고용 또는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인데, PRU는 미혼모들에게 집중 학습 지원, 다양한 과목에서 GCSE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체력 단련이나 부모 교육과 같은 대체 커리큘럼, 현장 보육 시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가정 교습을 포함하여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은 Maternity/Paternity Pay 제도를 통해 대학원생은 출산/육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Universal Credit을 통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ueen Mary

Financial Assistance Fund 제도에 신청할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필수 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 FAF로부터 받는 모든 보조금은 수업 관련 비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Mile End 캠퍼스에는 보육원이 있어서, 만약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Student Finance England에서 보육료의 85%까지 지급한다.

London South Bank University의 <Student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adoption policy>를 통해 대학의 학생 임신, 출산, 양육 및 입양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LSBU는 기밀 유지 조항을 통해 학생의 임신 또는 자녀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학생의 동의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게 되면, 건강 및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부나 대학원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세부적인 지원으로 책임자는 시험 중 임신한 학생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거나, 화장실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험에 대한 임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이 출산 전후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장기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의 출산 및 입양 휴가를 이용할 수 있다. 휴가 후 학습을 재개하는 경우, 성공적인 학업 복귀를 위해 학생은 과정 책임자와 함께 복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University of East London의 Docklands 캠퍼스에서는 강의를 듣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보육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 수당 및 육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여러 수업에서 파트타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학기 중에는 도서관 두 개를 24시간 개방하여, 학습 시간을 최대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가정에서 학위를 완료할 수도 있다. New Beginnings과 Pre-entry courses and foundation years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오랫동안 학업을 쉬었던 경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아일랜드의 내용이다. 아일랜드의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TPSP)은 1999년 National Advisory Committee(NAC)에 의해 설립된 10대 부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로, 19세 이하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목표는 학업을 중단한 10대 부모가 학업을 완료하도록 돕는 것이며, 양육, 건강,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한다. 보통 그룹이나 일대일로 이루어지며 상담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10대 부모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만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TPSP는 학업완료프로그램(SCP)과 Childcare Employment and Training Support(CETS) 등을 통해 자녀 돌봄, 교재, 교통비, 교복 등을 지원한다.

Treoir는 TPSP와 협력하여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1976년 미혼모와 그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Treoir는 결혼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가 법에 따라 완전한 평등을 누리고, 그들의 법적, 시민적, 경제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으로 모두 정당화되는 아일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Trinity College는 아이를 출산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목록이 제공되며, 'Student Parent Carer and Pregnancy Policy'를 통해 부모가 되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동적인 시간표 조정, 수유실 제공, 학교 내 탁아소 운영 등을 통해 학생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 중인 학생에게는 출산휴가와 같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특히 대학원생은 최대 2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아빠들에게도 휴가를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팀은 이화여자대학교 복지 가이드라인과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기획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6개의 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St Michael's Fellowship은 영국의 사회단체로 어린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의 부모들을 돕고 있는 영국의 사회단체이다. 이 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이가 어린 부모들을 지원하는 'Outreach Young Parent Support Service'를 통해 본 팀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10대에게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Outreach Young Parent Support Services의 오프라인 만남은 사회화 과정에서 10대 부모와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국의 Care to Learn fund처럼 재정 지원을 통해 학업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Jo Davies는 영국의 사회단체인 WILD Young Parents Project의 CEO이다. 해당 단체는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를 도우며 미혼모 교육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Jo Davies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신과 출산을 겪은 미혼모들은 교육에서 벗어나 기본 학력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 멘토링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을 기초 학력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은 10대 미혼모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미혼부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확장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Alison Hadley 교수는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의 시행에 있어 정책 제언을 한 연구기관인 Teenage Pregnancy Knowledge Exchange의 총괄 책임자다. Alison Hadley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의 Teenage Pregnancy Strategy는 10대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 관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지역별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통계 조사를 통해 10대 임신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arie-Pierre Moreau 교수는 Anglia Ruskin University의 교수로 대학 내의 미혼모 규정에 관해 연구하였다. Marie-Pierre Moreau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 친화적 캠퍼스를 위해 학생부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소속감이 중요하며, 인식 개선을 위해 전시회와 다큐멘터리 제작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Treoir은 아일랜드의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TPSP)'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 단체이다. 본 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대 부모 지원 홍보 방안으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숏폼 플랫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 청소년 부모들의 학업과 양육 병행을 위해 아일랜드처럼 다양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Single Parent Rights는 한부모를 위한 정책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영국의 사회단체이다. 본 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등법에 한부모 가정을 포함시키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 인식 변화와 생활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한국에서도 복지 제도 개편과 양육비 지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해외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볼 수 있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교육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관계(relationship)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RSE를 참고한다면 효과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홍보 방안으로는 길거리 포스터와 SNS를 활용해 지원 제도의 존재를 알리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 자료를 활용한 전시 활동도 효과적이며, 홍보와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이 낙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미혼모 본인의 인식, 사회적 인식, 중, 고등학교 교직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미혼모에게는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실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교직원의 인식을 바꾸고 가장 근접하게 위치해있는 도움의 역할로서의 책임감 부여함으로써 비자발적인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을 예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러 사회 단체와 연구진들이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학비, 양육 비용, 주거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조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에 수유 시설이나 가족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가족친화적인 캠퍼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교내 편의 시설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의 수를 늘리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기존의 경험으로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중앙 정부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자문 기관(independent advisory group)을 만들고, 지방 정부에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황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축적해나간다면 이러한 관심이 모여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외에도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과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를 제작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미혼모 시설에서의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와 미혼모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팀은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프로그램 제안서를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통해 법률적 당위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대안학교와 출산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돕는 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St Michael's Fellowship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에게 동기부여와 사회화를 중시한 2:2 멘토멘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인천 자모원의 대학생 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상호 성장을 기대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내의 학생부모 및 임산부 지원 방안이 미비함을 확인하여

제도 및 규정의 개선을 통해 보다 가족 친화적 캠퍼스를 갖춘 이화여자대학교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팀은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를 통하여 교칙의 개정, 학생 지원 시스템 개선, 수유 및 휴게 시설의 확충, 그리고 학생부모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속감 부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의의

1) 본 연구는 수년간 한국의 주요 연구 분야가 아니었던 미혼모 지원, 특히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청소년 미혼모들이 학업이 중단되어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를 모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대중들과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은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하여 교육 환경의 개선과 함께 미혼모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본 연구는 10대 출산 및 한부모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성공한 국가들, 즉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두 국가들이 시행하였던 두 정책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정책이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며, 사회적 지원과 개인의 자립성 강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보완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제안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취약 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한국의 미혼모 정책과 관련하여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3) 본 연구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보다 가정 친화적인 한국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있는 출생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복지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한 계층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통해 미혼모 외에 다른 취약 계층의 복지 지원 연구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본 연구는 국내 대학 내의 미혼모와 학생부모 지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다른 여러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며, 학생부모들이 가정과 학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 내에서 미혼모들이 학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 내에서의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미혼모와 학생부모들이 학업 성취와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 본 연구는 미혼모 관련 시설과 대학교를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미혼모 지원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다양한 사람들 간의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대학생들과 미혼모들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봉사 활동을 통해 미혼모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교육 봉사 프로그램으로 미혼모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더하여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들의 교육과 사회적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3. 후속 연구 방향

1) 미혼모(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사회가 한부모 가정을 비정상으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해 정책 제정에 있어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한다.

2) 주거 문제, 사회적 시선 등과 같이 미혼모들의 학업 지속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혼모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하기 위한 기회의 폭을 넓힐 수 있다.

3) 영국의 Relationship and Sex Education(RSE)과 같이 책임감 있는 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제고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을 축소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2010.

권경주·전귀연, 「양육미혼모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생활과학회, 2022.

김광수,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과 학업 지속 선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11권 제2호,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23.

김정희·김향미,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적 인정과 법정책」,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3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김현경,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회복을 향한 분투노력: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미래사회복지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2010.

노경란·김숙이, 「10대 미혼모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국가 간 비교연구: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1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8.

박지영, 「양육미혼모의 출산과 양육과정에서의 몸의 경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박현미, 「청소년미혼모가 지각하는 학업복귀의 장애요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3.

백혜정, 「청소년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12권 제17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https://www.seoulhanbumo.or.kr/han/contents/han-reinforceCapa.do, 2024년 7월 16일 검색.

성정현,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권 제2호, 2015.

손하림·이동귀·박종철·이나희·오현주, 「국내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교육치료학회, 2021.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https://www.mogef.go.kr/cs/opf/cs_opf_f071.do, 2024년 7월 16일 검색.

윤동경·김연옥,「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비교연구 - 한국과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미혼모관련 지원정책을 중심으로-」,『21세기 사회복지연구』제16권 제1호,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9.

이용우,「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한국사회정책』제24권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지성배,「나래대안학교…"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심을 길러 세상을 밝힌다"」,『에듀인뉴스』, 2016.12.20.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5.

한부모가족지원팀,「심리적 울타리 형성을 위한 미혼모 프로그램 : 기관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중심으로」,『연세상담코칭연구』제6권,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2016.

허민숙,「양육, 자립의 이중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부모 지원 과제」,『여성연구』제 119호 제 4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홍순혜,「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2012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Anglia Ruskin University, "Support and facilities", https://www.aru.ac.uk/student-life/support-and-facilities, 2024년 7월 16일 검색.

Byrne, Delma·Murray, Cliona, “An Independent Review to Identify the Supports and Barriers for Lone Parents in Accessing Higher Education and to Examine Measures to Increase Participation”, Technical Repor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Dublin, 2017.

Freedman, Jane, “Early pregnancy and education in the UK”,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20.

Harkness, S, “Single Mothers’ Income in Twelve Rich Countries: Differences in Disadvantage across the Distribu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702 No.1,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2022.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STUDENT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ADOPTION POLICY』, LSBU website at http://www.lsbu.ac.uk/about-us/policies regulations-procedures and

MyLSBU, 2022.

Nieuwenhuis, R, “The situation of single parents in the EU”, European Parliament, 2020.

Pugh, Ellen, “Student pregnancy and maternity: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quality Challenge Unit, 2010.

Teenage Pregnancy Knowledge Exchange, "Teenage pregnancy a short briefing", University of Bedfordshire, 2023.

TPSP, “The TPSP Operating Model”, 2020.

TPSP, “TPSP Annual Report 2022”, 2023.

Treoir, “Treoir 2023 Annual Report”, 2024

Trinity College Dublin, “Policy on Supports for Student Parents, Student Carers and Students Experiencing Pregnancy”, 2023.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Advice and Counselling Service", https://www.qmul.ac.uk/welfare/money-and-practical-advice/studentswithchildren/, 2024년 7월 16일 검색.

University of East London, "Parents who study", https://uel.ac.uk/study/undergraduate/parents-who-study, 2024년 7월 16일 검색.

V. 부록

[부록 1] 탐사 일정 및 사전 준비 과정

1. 탐사 일정

일자	지역	장소	현지시간	한국시간	활동내용
제1일 6/23(일)	인천	인천국제공항	12:20	12:20	항공기 이륙 및 출국
	런던	히드로공항	18:50	02:50	항공기 착륙 및 입국
		숙소	20:30	04:30	숙소 체크인 및 기관 방문 준비
제2일 6/24(월)	런던	숙소	10:00	18:00	인터뷰 준비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11:00	19:00	대학 Nursery 및 학생 지원 시설 탐사
		숙소	13:00	21:00	자료 정리 및 인터뷰 준비
제3일 6/25(화)	런던	숙소	9:30	17:30	숙소 → 기관 이동
		St Michael's Fellowship	10:30	18:30	[인터뷰 진행 1] Sue Pettigrew 인터뷰
		숙소	14:30	22:30	인터뷰 내용 정리
제4일 6/26(수)	런던	숙소	10:00	18:00	[인터뷰 진행 2] Jo Davies 인터뷰
제5일 6/27(목)	런던	숙소	13:30	21:30	숙소 → 기관 이동
		회의실 대여	15:00	23:00	[인터뷰 진행 3] Alison Hadley 인터뷰
		숙소	18:00	02:00	인터뷰 내용 정리
제6일 6/28(금)	런던	숙소	10:30	18:30	숙소 → 기관 이동
	케임브리지	Anglia Ruskin University	14:00	22:00	[인터뷰 진행 4] Marie-Pierre Moreau 인터뷰

	런던	숙소	19:00	03:00	인터뷰 내용 정리
제7일 6/29(토)	런던	숙소			선행 인터뷰 정리 및 인사이트 작성
제8일 6/30(일)	런던	숙소	05:30	13:30	숙소 → 개트윅 공항
		개트윅 공항	08:55	16:55	항공기 이륙 및 출국
	더블린	더블린 공항	10:20	18:20	항공기 착륙 및 입국
		숙소	11:30	19:30	숙소 체크인 및 기관 방문 준비
제9일 7/1(월)	더블린	숙소	10:00	18:00	인터뷰 내용 종합 정리
		Trinity College	11:00	19:00	대학 Nursery 및 학생 지원 시설 탐사
		숙소	13:00	21:00	숙소 도착 및 자료 정리
제10일 7/2(화)	더블린	숙소	10:00	17:00	숙소 → 기관 이동
		28 N Great George's St	11:00	18:00	[인터뷰 진행 5] Treoir 인터뷰
		숙소	13:30	20:30	인터뷰 내용 정리
제12일 7/3(수)	더블린	숙소	04:00	11:00	숙소 → 더블린 공항
		더블린 공항	07:00	14:00	항공기 이륙 및 출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10:15	17:15	항공기 착륙 및 입국
			18:30	01:30	항공기 이륙 및 출국
	인천	인천국제공항	(7/4) 13:20		항공기 착륙 및 입국

2. 인터뷰 사전 준비

1) 기관 컨택 과정

기관 검색 및 정리(구글 검색 후 노션 페이지 이용하여 정리) → 브로셔 제작(팀 및 프로그램 소개) → 메일 컨택(국내/해외 양식 제작, 브로셔 첨부)

2) 팀 명함/명찰/현수막/브로슈어/답례품

(1) 팀명

본 팀은 본교를 뜻하는 'Ewha'와 어머니를 뜻하는 'mother'의 합성어인 'E-ther'를 팀명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팀의 목표를 팀명에 담았다. 또한 E-ther는 양쪽 다, 모두의 의미를 갖는 영단어 Either과 같은 발음으로, 모든 가정의 형태는 'either way good'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청소년 미혼모의 복지를 위한 교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포부를 담았다.

(2) 팀 명함

(3) 명찰

EWHA WOMANS UNIVERSITY
2024 GLOBAL FRONTIER
PARK CHAE YOUN
E-THER
EWHA WOMANS UNIVERSITY
2024 GLOBAL FRONTIER
KIM GYU RIM
E-THER
EWHA WOMANS UNIVERSITY
2024 GLOBAL FRONTIER
KIM SOO JUNG
E-THER
EWHA WOMANS UNIVERSITY
2024 GLOBAL FRONTIER
OH SEO HYUN
E-THER

(4) 현수막

Ewha Womans University
2024 SUMMER Ewha Global Frontier
E-ther
이화여자대학교 2024 하계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E-ther
GYURIM KIM SOOJUNG KIM SEOHYUN OH CHAEYOUN PARK

(5) 브로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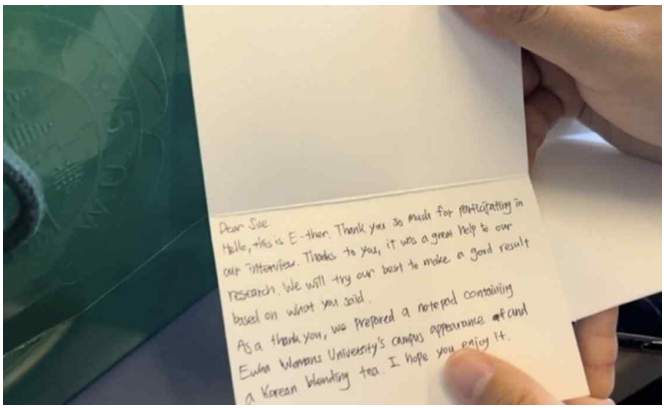
EWHA WOMANS UNIVERSITY
E-THER
<project introduction>
Who we are
We are 'E-ther,' a team participating in Ewha Womans University's overseas exploration program, "Ewha Global Frontier."
Our team members are undergraduate students at Ewha Womans University with four different majors: business administration, Chinese literature, life science, and climate energy system engineering.
All of the team members have interests in women rights and all agreed on the necessity of supporting teenage single mothers who are vulnerable, but not getting properly supported due to the society's negative streotype.
Moreover, we found out that most of the teenage single mothers in South Korea are not educated well, which leads to low income and low quality of life.
For better South Korean society with every family form getting properly supported, E-ther concentrates on educational supports and plans for the overseas exploration project to benchmark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Ireland.
Members
Chaeyoun Park
As a team leader, make a proper decision and lead the overall project
Gyurim Kim
Design promotional goods and take photos and videos for archiving
Soojung Kim
Plan promotional contents and organize photos and videos for archiving
Seohyun Oh
Manage the overall budget and make reservations for the project
E-ther

E-THER
What is Ewha Global Frontier?
Ewha Global Frontier program is an overseas exploration program conducted by Ewha Womans University to foster global women leaders with a wide range of challenging spirit and problem-solving skills, annually selecting and dispatching seven teams abroad.
Our goal
1) Setting up guidelines for supporting pregnant students or students with children of Ewha Womans University
: Based on the case of supporting student parents at universities of the United Kingdom and national policies, we will develop guidelines to support pregnant students or students with children likely to discontinue their studies due to their situation at Ewha.
2) Proposing volunteer programs for alternative schools for lone mothers in Seodaemun-gu, Seoul with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
: Currently, alternative schools for pregnant teenagers in South Korea are suffering administrative problems due to the lack of volunteers. We will develop volunteering programs with Ewha students, who can be mentors of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s.
Background
South Korea's birth rate is 0.72 as of 2023, which is recorded as the lowest in the national history. We believe that expanding support for single mothers can be a wa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by improving the parenting environment.
We assume that benchmarking the UK's "Teenage Pregnancy Strategy," and the Ireland's "Teen Parents Support Program" for the South Korea's single mother learning rights policy will be effective.
Our plan
We are planning to interview experts continuing research on lone parent support policies, Pupil Referral Units, universities, social organizations, and state-run institutions to hear about the effectiveness, actual condition, and systematic progres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our official e-mail
e.ther.ewha@gmail.com

(6) 답례품

a. 국내: 이화 쿠키

b. 해외: 오설록 티백 세트, 이화 포스트잇, 자필편지



[부록 2]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 정리

1. 국내 인터뷰

1) 고운뜰

방문일	5월 21일
장소	고운뜰
대상자	김정숙 원장

고운뜰의 시설 현황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으며, 3층에는 10개의 방이 있어 최대 10명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시설에서만 양육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다양한 양육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현재는 60~70% 정도만 수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여러 입소자가 있을 경우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 인원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과 자녀들을 위해 주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운영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거에는 '홀트고운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인원이 적고 운영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는 담당 직원의 임금 부족, 커리큘럼 작성의 어려움, 학생들의 학력 편차 등이 있었습니다.
고운뜰을 운영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대안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담당 직원의 임금 지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비의 70~80%를 인건비로 줘야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작아서 최저임금도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대안학교는 더 열악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도에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을 모두 합쳐서 지원하는데 이것을 합쳐도 최저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후원금에서 충당하지만 역시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퇴근을 일찍 시키거나 여러 방법을 모색하며 직원의 임금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장기근무가 어려워지고, 직원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도 사업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미혼모 지원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국가 복지 시스템이 발전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학력보다는 직장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혼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사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 E-ther은 대안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검정고시 응시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재학생들이 멘토로서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생각 중인데, 이러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학교 재학생들이 미혼모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배우려는 학생과 가르치려는 멘토의 열정이 맞아야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의 부족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지원은 웬만하면 가능하며, 입소자들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은 후원금을 통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인천 자모원/바다의 별 대안학교

방문일	5월 24일
장소	인천 자모원
대상자	인천 자모원 원장, 바다의 별 대안학교 담당자

인천 자모원과 바다의 별 대안 학교가 설립하게 된 계기와 운영 현황
인천 자모원은 2010년 학생 미혼모들이 자퇴를 강요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필요한 학력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바다의 별 대안학교에는 약 10명의 학생이 있으며,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미국, 영국 등의 해외 대안학교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청소년 미혼모들과 인천 자모원 관계자들이 각각 느끼는 교육의 중요성은 어떠한지
청소년 미혼모들은 학업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회에 나가보면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인천 자모원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대안학교와 검정고시는 미혼모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다의 별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학생들의 검정고시 참여율은 어떠하고, 검정고시 운영이 이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검정고시 참여율은 높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는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미혼모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자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다의 별 대안학교는 위탁 교육 기관으로서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적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 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재적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적학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임신을 숨기고 싶어해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많은 학교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 상의 어려움은 많이 개선되었으며,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하는 사례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미혼모 시설에 대해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시설 운영자로서 현재의 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대만은 청소년 위기 임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재가하여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간호사들이 청소년 미혼모의 멘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주거지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혼모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는 데에 경제적 결핍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E-ther은 대안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검정고시 응시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재학생들이 멘토로서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생각 중인데, 이러한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올해 처음으로 인근 대학의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수학이랑 한국사, 과학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후, 직접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모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적 장점 덕분에 더 마음이 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미혼모 시설과 연계한 멘토멘티 형식의 교육 봉사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 해외 인터뷰

1) St Michael's Fellowship

방문일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St Michael's Fellowship (136 Streatham High Rd, London SW16 1B)
대상자	Sue Pettigrew OBE (Director)

나이가 어린 부모를 지원하는 Outreach Young Support Service의 주요 내용과 시작 계기는 무엇인지
Outreach Young Support Service는 2000년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당시 낮은 연령대에서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원가족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계획과 동기, 자신감이 부족하고 낙태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부모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 부모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적 정책인 care to learn, sure start등의 지원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Outreach Young Support Service의 진행에 있어 중시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면을 기반으로 하는 1대1 지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년간 나이가 어린 10대, 20대 부모를 여럿 만나왔는데, 대체로 고립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모두 다른 특성과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단체 만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은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Outreach Young Support Service에서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과 자녀들의 사회화를 돕고자 힘쓰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온라인으로 상담 및 만남을 진행하며 타인의 자세와 미묘한 몸의 움직임을 볼 수 없기에 진정한 사회화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1대1 만남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자신감이 축적되었다고 느껴질 때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부모들의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졌는데, 식사 예절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능력의 부족, 공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모두에게 사회화 기

회를 제공하고자 매주 금요일 여러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함께하는 Friday Grou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10대 미혼모들은 교육의 지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편인지, 국가적으로, 기관적으로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만나온 10대 부모들은 동기 부여의 부족으로 학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 Michael's Fellowship에 찾아오는 부모들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부모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립에 성공한 부모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작은 성취부터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정책으로는 care to learn fund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육과 학습의 병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영국의 현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나이가 어린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난 20여년간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주거 관련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 부모들이나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너무 작고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 주거시설을 지원하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장 며칠 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통보를 받거나, 대체거주지로 옮겨져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보다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WILD Young Parents Project

방문일	6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Zoom 화상 인터뷰
대상자	Jo Davies(CEO)

WILD Young Parents Project에 대한 소개와 최근 주요 활동
10대 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이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700여명의 부모를 도왔으며, 최근에는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아기의 수를 줄이고 부모들의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인 Teenage Pregnancy Strategy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어린 부모들을 지원해왔는지
Teenage Pregnancy Strategy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임신, 출산에 있어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는 전략입니다. Teenage Pregnancy Strategy가 성공적으로 영국의 10대 출산율을 낮추고 그들의 생활을 진보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10대 임신/출산율이 국가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10대 부모들에 대한 국가적, 기관적 차원의 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영국에서는 보통 50%정도의 국민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 16세에서 18세의 나이에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10대 부모들은 저학력인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문해력, 수리 능력이 부족하여 이후 다시 교육에 접근하는 데에 장벽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WILD Young Parents Project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과 상담 외에도 언어, 수학 등의 기본적 학업 능력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ILD Young Parents Project의 도움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곤 합니다. 저학력은 가난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한부모 가족들 또는 어린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교육과 양육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대 미혼모들의 자발적인 학습 지속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하며, 정책적 차원에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
아기가 있으면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특히 몸이 변화를 거치며 양육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산모들이 겪는 산후우울증도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해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대 미혼모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6살 때 뭘 하고 싶었는지 물었을 땐 다양한 직업과 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뭘 하고 싶은지 물었을 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10대 미혼모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10대 미혼모들의 교육 지속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 내에서 양육이 가능하게 하는, 자유롭게 교육과 양육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기에 학교 내에 보육시설을 두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혼모로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정신적인 힘듦이 해결되어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한 효과적인 학업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교육자들이 미혼모들의 트라우마와 경험을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혼모와 자녀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어느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학습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Alison Hadley 교수

방문일	6월 27일 오후 3시
장소	런던 소재 회의실 (218 The Strand, Temple, London, WC2R 1AT)
대상자	Alison Hadley OBE(Director)

영국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10대들의 임신과 출산이 흔했기에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젊은 여성들의 동기 부여가 부족했기에 국가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되었습니다. 노동당 정부에 들어 여러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성교육과 더불어 방지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Teenage Pregnancy Strategy에 있어 Relationship and Sex Education(RSE) 프로그램이 중시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에 적용이 가능할지
Teenage Pregnancy Strategy는 출산율을 반절로 줄이는 것과 출산한 10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전략입니다. 영국에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이 많다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성관계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더 나아가 관계에서의 동의, 그리고 피임과 낙태에 대한 지식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특히 성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그 의미가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 관점에서 성에 대해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고 빠른 성경험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방식이며 성경험을 늦추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와 임신, 출산은 남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에,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Teenage Pregnancy Strategy 실행 이후 많은 부분에서 관련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 지역별 격차와 높은 확률의 청소년 미계획 임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영국의 임산부들을 살펴보았을 때, 16세 이하의 임산부는 거의 대부분 낙태를 선택하고 이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임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간의 불균형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수록 임신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보다 관계와 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또한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며, 피임에 대해 보다 잘 알고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더 작은 단위의 취약 계층에 다가가 복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10대 임신문제와 위기임신청소년에 대한 인식, 지원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당사자와의 소통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10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10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임신/출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들어봐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많은 어른들이 최근 10대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성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곤하지만, 성과 피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특히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교육 부족 문제는 빈곤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토대를 쌓아 관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부위에 대한 명칭을 잘 아는 것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신고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부모들에게 집에서의 적극적 성교육이 오히려 10대들의 성관계 시점을 늦출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학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 관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방면에서의 지원을 찾고 알리는 것도 확증 편향을 방지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데에 큰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0대 부모들이 학습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은 무엇인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꺼려하곤 하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개개인에게 맞춰진 환경을 수립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육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양육을 위한 비용은 필요하며, 아이가 아프거나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미혼모, 학생부모끼리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 교육 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에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 미혼모 또는 학생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차원에서 임신했거나 출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어떠한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지
학교 또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때 이미 가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조사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양육 지원을 통해 학업에 집중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대학 졸업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녀로 인해 충분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도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학업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교내 학생부모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좀 더 어린 부모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학교 또는 정부의 차원에서 개인 멘토/튜터를 지원하는 것도 학습을 따라가는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Marie-Pierre Moreau 교수

방문일	6월 28일 오후 2시
장소	Anglia Ruskin University Young Street Building(Young St, Cambridge CB1 2LZ)
대상자	Marie-Pierre Moreau 교수 (PhD, Professor)

학생부모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생부모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교직원들의 의식 개선 및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힘들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책임감을 가진 학생부모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들을 직접 돕고 지원하는 교직원들에서부터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돌봄의 관계 안에서 살아감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나 돌봄의 주체도, 객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일반화시켜 모두가 알도록 하는 것이 학생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구물 중 하나인 <Fostering a sense of belonging for higher education staff and students with caring responsibilities: What works?>이 영향을 미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해당 연구물에서는 돌봄 의무(caring responsibility)를 가진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제안하여 진행된 것 중 하나로 돌봄 의무를 지닌 학생들의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자 노력했고,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교들이 학생부모를 비롯한 돌봄 의무를 가진 학생들을 배려하여 강의 시간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학생부모를 위한 정책이 임신 및 출산의 휴학 사유 인정 외에는 사실상 없는데, 한국 대학들의 규정 및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며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는 대상인 학생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나 FGI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영국에서의 학생부모를 위한 지원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은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생부모들의 학업 정진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금전적 지원도 매우 유의미하지만,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나 양육 시설의 지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부모들이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양육과의 병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과제나 시험, 또는 전반적인 시간표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영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정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학교 자체가 아이들을 환영하는, 가족친화적 캠퍼스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부모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공입니다. 모유수유, 자녀와의 휴식이 자유롭게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교내 학생부모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학업 유지 및 심리적 안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5) Treoir

방문일	7월 2일 오전 11시
장소	Treoir(28 N Great George's St, Rotunda, Dublin, 1, Ireland)
대상자	Samantha Dunne(National Manager), Emma Hughs(member of the TPSP team)

Treoir의 주요 역할 및 비전은 무엇인지
Treoir은 국가 기관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의 헌법 및 법률상 결혼한 가족을 가족의 기본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에서 지키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부모와 미혼인 부모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reoir은 Teen Parents Support Programme과 어떻게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TPSP는 약 25년 정도 시행되어온 프로그램인데, 많은 10대 미혼모들이 병원에서 출산한 이후 어떻게 부모로서 행동해야할지를 몰라 병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이가 어린 부모들을 타겟으로 하여 돕는 정책을 만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Teenage Parents Support Programme은 국가의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를 바탕으로 시행되는데, 각 정부기관의 인사들과 Treoir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 그리고 실제 부모들이 참여하여 어떻게 10대 부모, 한부모를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다보니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영양소 부족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이 국가적인 위원회 설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모든 어린 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비롯하여 실제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고, Treoir는 그 중 하나입니다. 더블린을 비롯한 많은 아일랜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일랜드의 10대 부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현재 아일랜드의 20세 이하 출산율은 4%정도입니다. 대부분의 10대 부모들, 특히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양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입니다. 가장 어린 자녀가 7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family payment가 존재하는데, 미혼모의 근로 장려를 위해 교육 또는 근로해야 하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 양육과의 병행이 어렵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원 시스템 유지와 더불어 지원 대상자들과의 신뢰 관계 유지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지
TPSP의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체단체와 시민들 간의 관계에 TPSP를 녹여내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 정부가 복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것도 정책 시행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엄격한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부모와 다른 부모간의 관계 형성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신뢰 관계 유지와 참여 독려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의 10대 미혼모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의지는 어떠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주로 어떤 방향이 제시되는지
아일랜드의 10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교육의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reoir에서는 이들이 Secondary school를 졸업하고, 이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대 한부모들, 또는 자녀가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양육입니다. 아일랜드에는 현재 고등 교육 장려를 위해 SUSI (Student Universal Support Ireland)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존에 지원되는 가족 양육비용에 더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대 부모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 간단히 검색하는 것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정보 링크와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10대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sns를 주요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보를 이러한 sns 플랫폼에서 찾고자 하는 만큼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sns콘텐츠로서 주요한 정보를 홍보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PSP와 관련된 정보는 본인이 해당자가 되어 필요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기에, 필요할 때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Single Parent Rights

인터뷰 진행일	7월 9일(서면 인터뷰 진행)
대상자	Ruth Talbot(Founder, Director)

Single Parent Rights에서 하는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최근 가장 주로 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한부모라는 정체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평등법에 한부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폭넓게 한부모 가정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는 양육 정책에서의 소외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이 양육자, 실업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무료 돌봄을 제공하지만 양육자이거나 장애인인 한부모에 대해서는 돌봄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부모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보다 노동에 대한 부담이 큰데, 이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발전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최근에는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져 많은 이들이 그들을 대단하다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부모들이 혜택을 무료로 가져가는 사람들(benefit scroungers)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에 보다 호의적으로 정책이 바뀌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정책 변화를 위한 이해와 지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평등법(Equality Act)에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평등법에서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이 국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해결되어야 함을 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 개발에 있어 큰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차별에 대해 한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대다수의 한부모

들이 여성들이기에 간접적인 차별을 문제삼아 대응하고 있지만, 많은 차별은 여성이기뿐만 아니라 한부모라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실제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아직 한부모, 특히 나이가 어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이들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변화 및 노력이 필요할지
현재 영국의 상황을 비추어 보자면, 대부분의 한부모 대상 정책변화는 보편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지만 영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복지 혜택 지급이 다른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10대, 20대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삶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결정에 그들로부터 나와야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나이가 어린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 그리고 가정 생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록 3]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 지원 개선 제안서

E-ther

1. 가이드라인 소개

1) 제작 배경

: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종합대학이자 여성교육기관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여성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가장 여성 친화적 캠퍼스를 갖춘 이화여대임에도 자녀가 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겸하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 및 지원은 미비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사회적 포용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화여대의 가족 친화적 대학으로서의 선도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며, 미비한 관련 규정 및 지원 제도의 설립을 위해 학생부모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작 목적, 기대 효과

(1)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생부모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차별 철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교내 학생부모의 정확한 수를 도출할 수는 없으나 교내에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이 재학 중이기에 학생들의 학업 지속 의지와 가족 보전을 위해 교내 규정을 제/개정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규정과 지원 제도가 없어 학교 생활에 있어 불편을 겪거나, 차별을 겪는 경우도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국내 사립 대학들 전반의 규정 변화 도출: 이화여자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이자 한국 여성사의 상징으로서 여성 인권 향상에 있어 선두주자가 되어 왔다. 현재 국내 대학들, 특히 사립 대학들에는 학생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휴학 및 결석 규정 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미비한 상태인데, 이화여자대학교에 관련 규정 및 제도가 신설되는 것은 다른 사립 대학들의 규정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이화여자대학교의 가족 친화적 캠퍼스 구축: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내의 학생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캠퍼스가 되어 가족 친화적 캠퍼스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관련 현존 법 규정 및 제도, 권고 사항

1)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2012)

앞으로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 군복무 휴학은 학교가 정한 휴학 외에 별도의 휴학으로 인정 또한,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사례 및 권익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미비 모든 대학에서 병역복무기간은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대부분 대학은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 대한 임신·출산·육아를 별도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4년제) 중 31개 대학교(66%)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음('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게다가,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들조차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출산·육아 중 한 가지 사유 정도를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 휴학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재학 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원)생은 '제적'처리 ② 육아 대학(원)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미흡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학생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렵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실제로는 교직원 자녀로 한정된 경우도 많다.
※ 전남지역○○대학교, 전북지역○○대학교 등은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에 대학생 자녀 미포함, 경인지역○○대학교, 충남지역○○대학교는 위탁어린이집 입소대상에 대학(원)생 자녀 미포함('12. 9. 권익위 실태조사)
※ 전남지역의 한 대학은 금고은행 직원의 자녀 및 지역주민 자녀까지 대학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대학생 자녀는 제한
수요에 비해 대학 내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대학도 많다.
※ 전국 432개 대학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학은 78개(18.1%)이고, 이 중 직접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30개에 불과('11.6월.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가 대학(원)생 부모의 출산·육아 고충을 해소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제도 도입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예:2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 경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학생에게 최대 2년간의 별도휴학을 인정해주고 있음('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②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부여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 서울대학교는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정원의 55%를 학생의 자녀로 규정('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각 사립대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

하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3) 고등교육법 개정안(학생부모법)

제23조의3(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병역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본조신설 2016. 3. 2.]

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적용원칙 1.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2. 대학(원)생 ①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5)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2): 출산, 양육 관련 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안, 2020.4.)

1. 추진 배경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출산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 제도의 미흡으로 출산 양육 과정에 고충을 유발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출산으로 인한 결석 시 학점에 불이익 ※ 학교 내부 규정으로 공결대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친족 사망 등의 경우만을 공결 인정 가능한 경조사로 규정한 대학이 존재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 ① 현황 연간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정부는 출산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대학생인 부모를 위한 각종 제도 역시 도입되는 추세 대학생의 모성보호를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 필요 또는 여학생의 임신·출산 시 휴학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16.3월,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신설) 대학생부모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인 맞벌이 가구로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② 문제점 -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 - 각 대학에서는 학교 내부규정으로 공결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존재 -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및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결석 시 공결처리 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 발생 우려 ③ 개선방안(조치 기한: '20.1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공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처리 요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 공결 관련 대학 학칙규정 개정(각 국·공립대학교)

6) 정리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의 모성 보호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부터 학생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학 및 대학원 학칙에 임신, 출산, 육아 휴학 반영, 대학(원)생 자녀의 대학 내 어린이집 이용 등이 권고되고 고등교육법의 개정, 보육사업에서의 대학(원)생의 취업한 부모와의 같은 대우 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학칙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의안은 권고 사항에 그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제도 개선의 당위성이 없어 국내 대학, 특히 사립 대학교에는 학생부모를 위한 시설 및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거나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3. 해외 사례

1) 영국 대학의 사례

(1)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 금전적 지원: Maternity/Paternity Pay를 통한 출산/육아 수당 수령, Universal Credit을 통한 생활비 지원, Queen Mary Financial Assistance Fund를 통한 필수 생활 지원금

- 유치원 시설 (Westfield Nursery)

(2)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 <Student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adoption policy>를 통한 교내 임신, 출산, 양육, 입양 관련 지원 정책 정보 제공

- 기밀 유지 조항을 통해 학생의 임신 또는 자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신중하게 취급되어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

- 강의 수강 중 평가 및 시험 일정 조정: 대체 평가 방식 제공, 임신한 학생에 대한 휴식 시간 제공, 더 편안한 의자 제공 등

- 수업 일정의 유연한 조정: 출산 전후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3) University of East London

- Docklands 캠퍼스에서의 보육 시설 제공: 강의를 듣는 동안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을 갖추고, 학습 수당 및 육아 보조금 제공

- 파트타임 강의 시스템을 통한 일과 학업의 병행 보장

- New Beginnings 프로그램: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학부 과정으로의

진학을 돕는 12주 간의 프로그램

- Pre-entry courses and foundation years: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을 지원하여 학부 학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

2) 전문가 제언(Dr. Marie-Pierre Moreau(Anglia Ruskin University))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생부모의 위치와 인식, 그리고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온 Anglia Ruskin University의 Marie-Pierre Moreau 교수는 E-ther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부모 지원 가이드라인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하였다. 교내 지원 제도 구축은 학생부모에게 있어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소속감 부여는 학생 개인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돌봄 의무를 가진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학생부모 담당 부서 및 직원 신설
- 교직원들에 대한 학생부모 인식 관련 교육
- 돌봄 의무를 지닌 학생들의 주기적 데이터 조사
- 장학금 지원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금 연계
- 학생부모 간 네트워크 형성
- 과제 및 시험에 있어서의 일정 유연화
- 양육비 지원

4. 본교 현황

1) 교칙

(1)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8장 휴학, 복학, 제적, 자퇴 및 재입학 <개정 2017.8.16.> 제26조(휴학) ④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3년(건축학과의 경우 4년, 의예과의 경우 3학기, 약학대학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25., 2015.9.18., 2016.2.16., 2020.3.20., 2022.1.20., 2023.12.28.> 1.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년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 2년 3. 군복무로 인한 휴학 : 해당 의무복무기간 4. 재난,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지정한 학기(단, 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5.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총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휴학 : 총장이 승인한 학기 제9장 교육과정, 이수, 수료 및 졸업 <개정 2015.2.6.>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① 1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8.16., 2018.2.7.>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2) 대학원 학칙

제15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7.08.16.>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다만, 교과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는 이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1.>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통역번역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9.18., 2020.3.20., 2022.8.9.> 1.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 협약을 맺은 해외 대학 복수학위 취득 예정인 석사학위과정생 : 2학기 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 : 2학기

2) 학생 지원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세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허나 아이를 양육하며 교육을 받는 양육미혼모가 교육적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한부모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상담지원: 학생상담센터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각종 심리교육 등을 통해 이화인들이 한 성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인권 상담: 인권센터는 인권 침해, 위계에 따른 부당한 괴롭힘,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등 발생 시 상담 및 조사/처리/구제,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인권 및 폭력(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홍보 등을 한다.

- 법률 상담: 이화법조인회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으로 약 2,000여 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 동창들 중 50여 명의 변호사가 이화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3) 수유실

현장 답사를 통해 이화여대 법학관과 ECC에 수유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수유실이 다른 건물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검색해보았으나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법학관과 ECC 수유실의 위치도 검색되지 않았다.

5. 도입

1) 교칙 개정

(1) 공결제도: 현재는 임신 및 출산을 휴학 사유로 인정할 뿐, 출석 인정 사유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에 따른 결석 시 공결처리 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9장 제40조 2항에 본인의 출산을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제9장 교육과정, 이수, 수료 및 졸업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 ① 1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8.16., 2018.2.7.>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16., 개정 2017.8.16.>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출산: 최대 20일

(2) 학생부모에 대한 시험, 과제 일정 조정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학생부모 규정에는 “Extenuating circumstances”를 인정하고 있다. 양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Extenuating circumstances 배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학생이 해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공결이나 시험일 변경, 과제 제출일 변경 등을 요청한다면 학교 측은 이를 참작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학칙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장기적 질병으로 해당 평가 방법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 방법을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대체 평가, 즉, 교과목을 수강하는 다른 학생에게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이 경우에는 학생)과 관련된 것이므로 평등법(2010)의 조건

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학칙의 적용 사례로 학생부모 인정 사례가 있었으니 이 항목과 같이 이화여대 학칙에 포함하여 학생부모의 시험, 과제 일정 조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제도는 수업을 함께 듣는 학우와 교수, 학교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바로 적용되기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한다.

Trinity College의 학생부모 규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학생들이 강의, 실습 또는 시험에 결석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학년을 높이거나 시작하기 위해 모든 학업 및 전문적인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 지원 프로그램 신설

(1) 수업 공백 지원 서비스

출산을 출석 인정 사유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20일간 강의 내용을 학습하지 못한 경우 학습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형식을 모방한 다음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수업 내용 필기: 수강신청을 완료한 교과목에 대해 노트북 속타, 노트필기 등 수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도우미를 연계하여 학생부모의 학습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편의 지원: 각 과목 담당교수와 상의 후 과제제출 기한 연장, 시험시간 연장, 확대 시험지 제공 및 답안작성 지원, 도우미배치, 시험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 대체 과제 부여: 공결 기간 동안 부여된 과제 중 기간 연장으로도 참여가 불가능한 과제의 경우 요청에 따라 대체 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부모 모임 공간 제공

선행연구와 국내 탐사를 진행하면서 한부모 간의 정보 교류와 유대감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고, Marie-Pierre Moreau 교수와 Alison Hadley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내 학생부모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제공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Trinity College의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모유수유 모임(breastfeeding group)을 개최 중이라고 한다. 수유하는 엄마, 임산부, 수유

를 도와줄 사람 누구든 해당 모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담당자의 메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후 들어갈 수 있다. 아래 페이지에서 Trinity College의 모유수유 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페이지에 수유실의 위치도 함께 정리되어 있다. Trinity College의 모유수유 모임을 모티프로 삼아 학생부모 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달에 1번 모임을 개최해 고충을 나누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교의 지원 시스템 등을 논의해 학교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는 고립감 해소, 정보 공유, 지원 시스템 개선, 유대감 형성 등이 있다.

https://www.tcd.ie/collegehealth/promotion/breastfeeding/

(3) 담당 부서 신설

현재 본교에는 학생부모를 위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생부모 모임을 개최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관련 부서의 개설 혹은 해당 업무를 맡는 직책이 필요하다. 학생부모 모임뿐만 아니라 아래에 서술될 시설의 관리 및 유지, 지원 시스템 홍보를 진행할 인력이 있어야 학생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장이 지속될 것이다. 담당 부서의 혹은 관련 직책을 맡는 사람은 임신 및 육아를 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교내 시설 보완

a. 수유실: Trinity College, London South Bank University 등 영국와 아일랜드 대부분의 대학은 수유실(Nursing room, Parenting room)을 구비하고 있다. 학부생만이 아니더라도 대학원생과 교수진, 직원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수유실을 여러 개 마련하고 이용을 활성화해야한다.

b. 교내 유치원 이용: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의 Mile End campus에는 학생부모들이 학내 유치원인 Westfield Nursery에 저렴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생부모의 공부 시간 확보를 돕고 있다. 본 팀이 직접 탐사하러 간 대학 두 곳(Cambridge의 대학들과 Trinity College)에도 모두 학내 유치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학생부모가 도움을 요청할 시 이화여대 캠퍼스 내에 존재하는 유치원에 학생부모의 자녀를 맡길 수 있게 하고 금전적 혜택을 함께 제공하여 이화여대 학생부모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육 지원은 유치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이 피해를 받아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역시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절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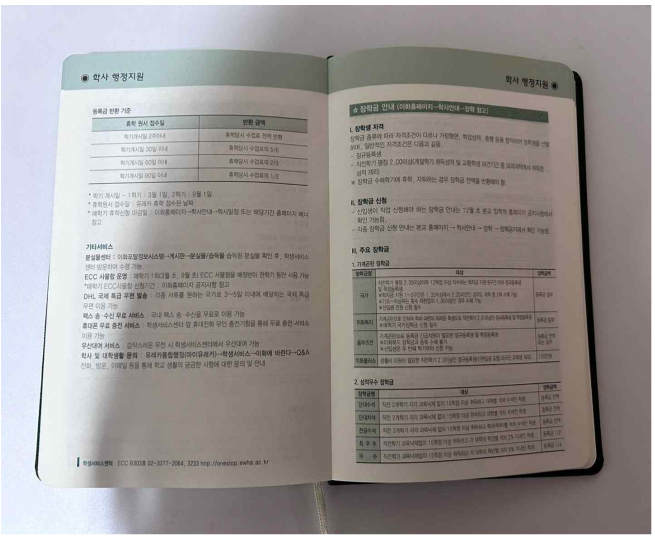
c. 가족 휴게실: 임신한 학생부모, 자녀를 둔 학생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유실보다 확장된 개념의 공간이며, 이화여대 구성원은 물론 외부 가족도 사용 가능한 휴게실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줄뿐더러 가족 친화적 캠퍼스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5) 홍보 방안

a. 한부모 학부생 지원 정책 PDF 제작: Trinity College의 <Policy on supports for student parents, student carers and students experiencing pregnancy>, London South Bank University의 <Student pregnancy, maternity, paternity, and adoption policy> 같은 PDF 자료를 참고하여 이화여대의 학생 한부모 관련 학칙과 지원 정책, 이용 가능 시설, 도움 받을 수 있는 외부 시설 및 장학금을 정리한 파일을 배포하고자 한다.

현재 학생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는 이화여대 홈페이지> 학생처> 대학생활> 학생지원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지원 정책 정리 PDF를 함께 게시하여 많은 학생이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면 높은 홍보 효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b.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수첩에의 한부모 지원 제도 소개: 매년 초 전교생에게 배포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수첩의 장학금 소개 페이지에 한부모 지원 제도 및 정보 페이지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필요한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수첩

c. 기대효과: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는 학생부모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 홍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학생 학생부모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교육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서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이화여대가 가족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국내 최고 여성 대학이라는 타이틀과 가족 친화적 캠퍼스의 이미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국내의 다른 대학에도 본보기가 되어 긍정적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양육과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교육 중단을 염려해 아이를 가지길 포기한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부록 4]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기획서

미혼모 시설 연계 교육 봉사 기획서

E-ther

1. 사업 목적

1) 정기적인 방문 봉사를 통한 교류 활동으로 대안학교들의 현 문제점 중 하나인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의 미혼모 시설과 대안학교에서 자원봉사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미혼모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봉사자의 수가 현저히 적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 경제적 어려움 및 상황적 요인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운 위기임신청소년들에게 학습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등학교 기초 교육 및 더 나아가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임신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무교육을 완수할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 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임신청소년 외에도 교육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4)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위기임신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또래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 체험, 심리 안정 등의 기회 제공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한 심리적, 사회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1) 사업명 : 이화여자대학교 연계 OOO(기관명) 학습지원 교육 봉사 프로그램

2) 사업 기간: 0000.00.00~00.00

3) 장소: OOO(기관명)

4) 대상 :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 모집 부문 : 국어, 수학, 영어, 컴퓨터(코딩)

6) 주요 활동내용 : OOO(기관)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수업 봉사자 및 2대2 매칭으로 멘토 멘티 활동 프로그램 진행

3. 추진 방향

1) 자원봉사 활동 계획 수립

- 수업 봉사는 각 주차에 맞게 수업 내용 및 계획 수립
-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조끼리 협의 후 활동 횟수 및 계획 조정

2) 자원봉사 활동 진행

- 봉사 리더 선정을 통한 원활한 봉사 활동 도모
- 각 신청한 과목에 맞는 수업 봉사 진행
- 교육 내용은 자율적으로 준비함
-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각 조끼리 자율적으로 활동 진행하고, 활동 후 활동 일지 작성하여 담당 실무자에게 제출

4. 일정

내용 / 기간	차수	9월	10월	11월	12월
대상자 매칭					
세부 활동 계획 수립					
봉사 활동(수업 진행 및 멘토 멘티)	1차				
	2차				
	…		…		
중간평가	8차				
	…		…		
	16차				
활동 종결평가 (소감 나누기 등)					

[표 1] 교육 봉사 프로그램 일정표